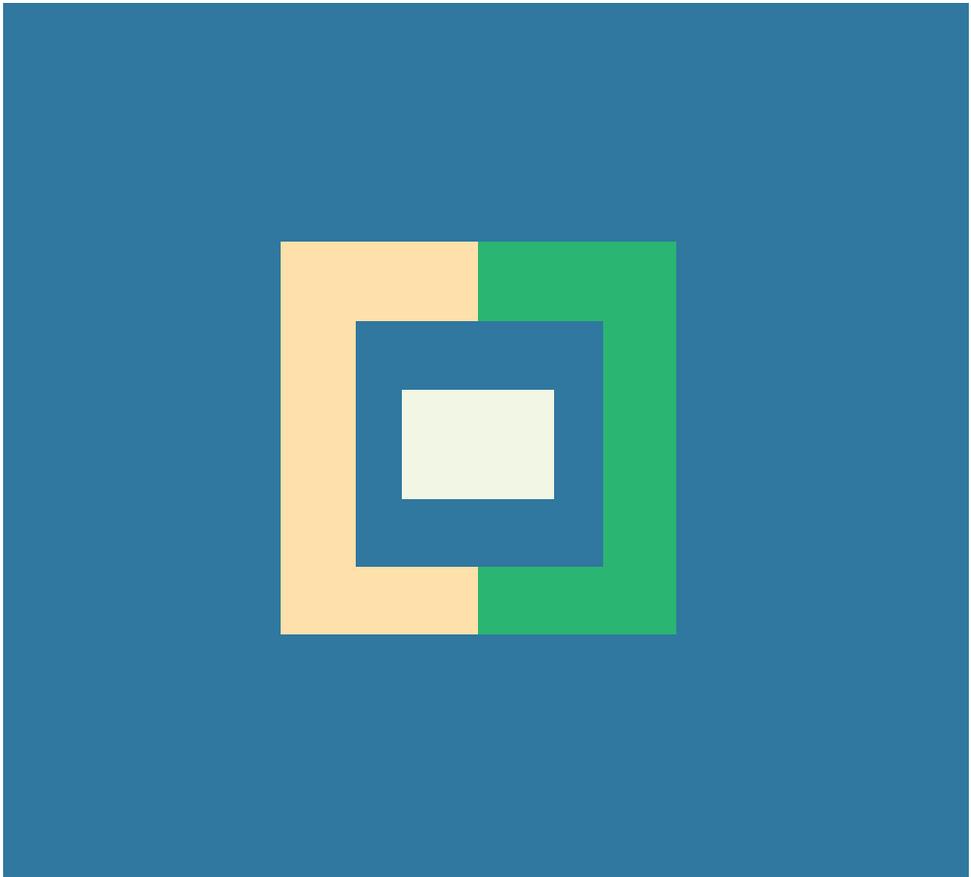


# 참전군인의

# 평화 활동에 대한 연구

활력향연  
01

\_석미화, 최나현





## **\_미미시스터즈**

**석미화 / 빨간연두** \_ dholggot@gmail.com

강낭콩을 좋아하고 닉네임은 빨간연두입니다. 어딜가나 식물에 물 주는 일을 도맡게 되는데, 반려식물을 키우는 취미가 있다가 보다는 혼자 말라가는 풀을 보며 측은지심이 발동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연민이 많아 식물, 동물,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역사와 평화를 만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활동가로 살며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일에 골몰한 1인입니다.

**최나현 / 짜미** \_ skguschi@naver.com

평화가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평화활동가. 아직도 자기소개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누구와든 대화하고 어떤 주제든 끼어들고 싶어 남몰래 부지런히 보고, 듣고, 쓰고, 읽습니다.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일'이라 말하는 것들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의제와 이슈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계인이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활동가 연구지원사업 결과물로서 서울시NPO 지원센터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전군인의  
평화활동에 대한 연구

석미화, 최나현



# 이야기 순서

## chapter 1. 들어가며

한 걸음, 길을 나서다 · 2

두 걸음, 나의 삶으로 이어진 · 6

세 걸음, 평화의 주체로 참전군인 바라보기 · 12

## chapter 2. 그를 만나는 방법

기존 연구와 차별성 · 16

개념적 배경과 실천적 접근 · 26

## chapter 3. 참전군인의 평화활동을 찾아서 : 한국 사례

인터뷰 평화를 사랑하는 제대군인 여러분을 모십니다  
: 평화재향군인회와 표명렬 · 36

인터뷰 월남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 김낙영 · 53

인터뷰 할아버지가 전쟁이야기 해줄게 : 양정석 · 70

인터뷰 항상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 류진성 · 86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겪는 사람들 · 103

설문조사 참전군인이 생각하는 평화란? · 109

## **chapter 4. 참전군인의 평화활동을 찾아서 : 미국 사례**

VFP(Veterans For Peace) · 127

VVAW(Vietnam Veterans Against The War) · 137

피테, 테드 그리고 앤드루 · 143

## **chapter 5. 나가며**

참전군인을 평화활동 동료로 초대하기 · 148

## **보고서에 담지 못한 이야기**

석미화의 에필로그 · 159

최나현의 에필로그 · 162

# chapter1. 들어가며

# 한 걸음, 길을 나서다

## 한 다리만 건너면 베트남전쟁에 다녀온 그 사람 이야기

셋 이상 모인 자리에서 ‘베트남전쟁’ 이야기를 꺼내면 어렵지 않게 개인의 기억을 만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 아버지이거나, 삼촌이거나, 형제이거나, 남편이거나, 할아버지이다. 때로는 학생 시절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동네 아저씨의 모험담 속에서, 친구의 가족이었던 그의 이야기로부터 베트남전쟁을 만난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태어나 바다라곤 본 적도 없는 청년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집채만 한 배를 타고 일주일 뱃멀미에 시달리며 ‘남남쪽 머나먼 나라 월남(越南)’으로 갔다. 가수 윤일로의 노래 ‘월남의 달밤’의 예전 가사인 ‘남남쪽 섬의 나라’처럼 필시 그곳이 섬나라인 줄 알았고, 그 전쟁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1964년부터 8년 6개월 동안 연인원 32만여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미국은 ‘비엠티남전쟁’이라 부르고, 베트남은 ‘미국 전쟁’이라 부르는 전쟁. 우리에게겐 ‘월남전’으로 익숙한 그 전쟁에 한국은 미국 우방 중 가장 많은 전투병을 파병했다. 박정희정부 시기 대대적인 환송 행사와 전 국민적인 관심 속에 이루어진 베트남전 참전, 한국의 영예로운 첫 해외 파병이었던 베트남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용산 전쟁기념관 해외파병실은 한국 사회 기억의 현주소를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그곳에 가면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대민 지원으로 불쌍한 베트남인을 도와주는 파월 한국군’과 ‘용맹한 타이한’의 활약상을 볼 수 있다. 베트남전쟁은 ‘한국 경제의 주춧돌’을 마련한 기회이자, 미국 우방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국위선양의 모범 사례’로 설명된다. 월남으로 가기 전 훈련을 받던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에 조성된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과 ‘월남참전기념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서 있는 수많은 월남참전기념비도 우리 사회 기억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박제된 기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전쟁기념관 해외파병실에서 월남에 간 청년의 얼굴을 찾아본다. 국가에 동원된 상징적 부속물로서 군인만 존재할 뿐, 전쟁의 상처와 고통은 찾아볼 수 없다. 총을 들고 열대의 ‘장글’에서 작전을

했던 그들, 영웅이 아닌 그들, 이념이 뭔지도 모르고 어느 열대 섬 나라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전쟁을 겪었던 그들의 존재는 지워지고 없다. 어쩌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셋 이상 모인 자리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 사람 이야기건만, 일상에서 만나는 베트남전쟁 기억에는 비틀리고 가난한 시선만이 넘쳐난다.

### 기억과 망각 사이

베트남전쟁은 한국 사회에서 흔히 ‘잊힌 전쟁’으로 불린다. 베트남 전쟁이 잊힌 전쟁이라면 그 전쟁에 간 참전군인은 더욱 관심받지 못하는 망각된 존재이다. ‘망각’이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에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존중받지 못한 채 부정적 인식 속에 머물러 있거나 소외당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것이 역사 속 사건과 함께 존재하는 이들이라면 말이다.

국가가 전쟁 기억을 통제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겪은 전쟁은 그야말로 ‘버려진다’. 우리는 거대한 기억이 개인의 기억을 한쪽으로 치워 버리거나 혹은 외면하는 현실을 보았다. 그 기억은 영향력 없고, 응원받지 못하며, 때로는 진위를 의심받는다. 우리가 관심조차 두지 않은 진짜 전쟁 기억은 이미 파편화되어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들여다보지 못한 참전군인의 이야기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본다. 전쟁 경험은 아프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자 무

쉽고, 두렵고, 끔찍한 잊고 싶은 경험이다. 동시에 자랑스럽고, 인정받고 싶은 복잡한 기억이기도 하다. 기억과 망각 사이, 참전군인의 전쟁 경험을 평화의 기회로 만들어 갈 수는 없을까? 그들의 전쟁 경험을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린 시절에는 6.25전쟁을 겪었고, 청년 시절에는 월남에 갔던 그들. 과연 참전군인은 평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쟁은 그의 삶에 무엇을 남겼을까?

이제 그들과 이야기 나누어 봐야겠다.

## 두 걸음, 나의 삶으로 이어진

###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석미화의 외삼촌 손명웅은 1965년 10월 월남에 갔다. 현지에서 베트남어를 배워 통역병으로 근무했다. 신체적 외상없이 무사 귀국하였지만 이후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다. 어느 한 곳에 취직하여 돈벌이하고 이따금 행복을 누리는 남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 술에만 의존하다 결국 생을 마감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의 삶을 전쟁과 연관 짓지 못했다. 국가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의 현장에 젊은 청년들을 동원하였지만, 전쟁이 끝난 후 고통은 개별화하였다. 전쟁 경험은 그들에게 단지 ‘사건’이 아니라 이후로 계속된 ‘삶’의 문제였다. 베트남전쟁을 교과서, 소설, 영화, 게임 속에서 낭만적이거나 흥미진진한 배경으로 다루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도 했다. 32만여 명이란 숫자에는 수많은 손명웅이 있다.

참전군인에게 전쟁경험은 애국심과 국가주의를 내면화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명예롭게 치환하는 데에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껏 생각 해왔던 것 이상의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깊은 사회적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기억하지 않는 수많은 참전군인은 지금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석미화는 한 명 한 명의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로 그들을 만나고 싶다.

최나현은 청년 활동가로서 또래 청소년, 청년들의 인식에 참전군인의 삶이 ‘전쟁 가해자’나 태극기 집회의 ‘정치적 꼭두각시’, 말이 통하지 않는 ‘꼰대’로 남은 상황이 안타깝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 또한 그 틀로 참전군인을 바라본 당사자였기에 복잡한 생각이 든다. ‘어쩔 수 없다는 건 핑계야’, ‘변명에 불과해!’ 전시 성폭력, 트라우마, 생태학살 등 베트남전쟁이 빚은 여러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참전군인 관련 이슈에는 불편한 진심을 숨기곤 했다. 참전군인과 내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는 게 당연했고,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애써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은 활동 속에서 참전군인을 직접 만나며 사그라졌다. 마냥 쉽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와 대화 끝에서 찾은 것은 결국 서로가 바라는 평화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언어가 다르고 만날 수 없는 지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분명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꾼다는 점에서 그와 자신은 같은 평화활동가였다. 최나현은 더 많은 사람이 참전군인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길 바라고, 청년이라는 이유로 자신과 전쟁이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석미화와 최나현은 베트남전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동료 활동가로 연을 맺었다. 녹음기와 카메라를 들고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을 만나 구술을 기록하는 작업을 함께 했다. 그를 만나 삶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평화를 만났다. 한국 사회와 시민 단체가 참전군인을 하나의 덩어리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다. 바람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나 넓었다. 같은 공동체에 참전군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 속에 그를 포함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모른다.

두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참전군인의 사회적 고립과 바로 서기를 풀어나가는 해답을 ‘참전군인과의 만남과 대화’에서 찾았다. 참전군인과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그들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봄으로써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과거에 머문 존재가 아닌 한 시대를 경험한 세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세대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고 싶다. 전쟁의 기억과 전후 삶에 관한 이야기는 깊은 깨달음과 수많은 고뇌를 품고 있다. 1960~70년대 20대 청년이었던 그들의 나이는 이제 7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10여 년 남짓에 불과하다. 평화의 주체이자 긍정적 존재로 그를 바라보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두 연구자는 그동안 지속해 온 참전군인과의 만남을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을 넘어서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의 전쟁 경험을 이야기할 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가해’와 ‘피해’의 관점이 그것이다. 전쟁을 비롯한 폭력의 현장을 바라볼 때 현장에 서 있는 이들을 ‘가해’와 ‘피해’라는 구도 속에서 바라보는 태도는 사실 누구에게나 쉽게 발견된다. 과연 ‘가해자’는 누구이고 ‘피해자’는 누구인가?

그런 익숙함 속에 정작 ‘가해’와 ‘피해’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 ‘가해자성’과 ‘피해자성’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가해자성’을 지닌 이와 ‘피해자성’을 지닌 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일까? 어쩌면 그것은 현실을 떠나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가해’ 아니면 ‘피해’라는 흑백 논리를 따라가면, 결국 양극단 사이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부터 질문의 출발점을 삼는다. 역사의 당사자에게 가해자의 자리와 피해자의 자리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 사이에 또는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측면은 없을까? 베트남전 참전군인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둘 다인가. 아니면 둘 다 아닌가. 참전군인과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다단한 측면을 함께 바라보려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다.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전쟁으로 끊어진 외교관계를 다시 맺으면서, 한국 사회는 베트남전쟁을 재생산한다. TV 인기 드라마와 영

화, 베스트셀러 소설 속에 참전군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80년대 발표한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안정효의 소설을 영화화한 정지영 감독의 「하얀 전쟁」, 박영한의 소설로 만든 SBS 드라마 「머나먼 송바강」이 대표적이다. 작품 속 참전군인은 주로 전쟁의 피해자로, 때론 가해자로, 남성으로, 아버지로, 동시에 전쟁의 낭만적인 주인공이자 영웅으로 등장한다.

1999년 『한겨레21』 기사 ‘아, 몸서리쳐지는 한국군’ 이후로 이어진 한국군이 저지른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 보도는 사회적으로 베트남전쟁의 가해 역사를 성찰하는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원했던 혹은 원하지 않았던, ‘참전군인’을 가해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었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 단체와 이를 부정하며 ‘명예훼손’, ‘사실무근’이라 주장하는 참전군인 단체. 입장의 대립은 갈등으로 이어졌고,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정작 한국 정부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음)’의 태도로 방관·묵인하고 있다.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가장 분명한 지향점일 것이다. 진실 규명하여 피해를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참전군인에게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상규명 활동에 반감을 갖고 목소리 높이는 참전군인 단체와 어떻게 대화해 나가야

하는지는 상당히 풀기 힘든 숙제다. 어떻게 해야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 사실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속에 그들과의 관계는 갈등의 요소로 봉인된 채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 밀린 숙제를 풀기 위해 대립하는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가해’와 ‘피해’라는 이분법적 구도의 한계를 벗어나 참전군인을 역사의 당사자이자 새로운 평화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을 출발선으로 삼는다. 그것은 전쟁을 겪은 당사자가 성찰의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사회적 성찰에서 참전군인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을 단지 ‘가해자’로 심판대에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그의 지난 삶을 존중하고, 전쟁경험을 평화로 만들기 위한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전군인 평화활동 사례를 연구해보려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 연구를 통해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미래 세대를 연결하고 사회 구성원 간 존중과 이해를 모색하길 바란다. 또 연구활동의 결과를 참전군인에게도 널리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향후 평화활동의 가능성을 열어가고자 한다.

## 세 걸음, 평화의 주체로 참전군인 바라보기

### 역사 당사자로서 참전군인

활동을 하며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한국 사회 곳곳에도 작지만 유의미한 참전군인의 평화활동이 있으리라 여겼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어렵지만 필요한 일이기에 먼저 우리와 함께하는 참전군인의 활동부터 새롭게 보고 그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에서 시작해 보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베트남전 참전군인 연구와 조사가 다양한 주제로 오랜 시간 축적되어 있으며, 참전군인의 전후(戰後)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다. 그런 배경 덕분에 실제로 미국의 참전군인은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평화운동의 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베트남전쟁을 ‘경제성장’과 ‘국위선양’을 넘어서는 접근과 분석으로 다루는 연구가 매우 드물다. 그 안에 존재하는 참전군인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오히려 부정적 단어로 표현되는 이미지 속에 ‘협오’의 대상으로 존재하기까지 한다.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이해 기반이 없어 우리는 참전군인을 집단의 익명성 아래 놓아둘 뿐 개별 존재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

###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평화’에 관한 심층 인터뷰와 인식조사**

이 연구에서 지칭하는 ‘참전군인’은 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전쟁을 경험한 이들을 말한다. 대한민국이 법과 제도로 규정하는 참전군인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이들로, 현재(2021년 9월 기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베트남전 참전군인은 총 18만 7,000여명이다.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지만, 6.25전쟁 참전군인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는 “참전군인의 평화활동은 가능하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논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전군인’, ‘평화’, ‘평화활동’을 정의하고,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참전군인의 생각에 다가간다. 기존 연구와 문헌, 기사를 통해 참전군인 또는 참전군인 가족의 사례를 찾아보고, 해외 참전군인의 평화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보고서는 총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참전군인’에 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그것과의 차별성과 연구 한계를 짚어

본다. 그리고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평화이론 속 ‘평화’와 ‘평화활동’의 개념을 정리한다. 두 번째로 한국 베트남전 참전군인 평화활동을 찾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참전군인의 평화에 대한 인식조사와 결과를 분석한다. 평화활동 사례는 단체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겪는 이들의 사례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평화활동 주체로 활발히 활동하는 미국 참전군인 단체와 개인의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참전군인 평화활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 chapter 2. 그를 만나는 방법

## 기존 연구와 차별성

### 국가의 기억 저편, 아프거나 혹은 ‘꼰대’이거나

베트남전쟁에 관한 연구가 대개 전사(戰史)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참전군인 개개인의 전쟁 기억과 전쟁 이후 삶에 관한 연구를 찾는 건 쉽지 않다. 참전군인이 중심에 등장하는 논문이더라도 그들의 기억 투쟁을 주로 정치적 맥락으로 해석한다. 전쟁 후 신체적 질병, 트라우마 등 의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며 전쟁 피해자로서 연구하는 사례도 종종 확인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역사적 사건 속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조명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다. 특히 ‘연구자’가 아닌 현장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그들과 같은 구성원으로 만난 위치에서 참전군인을 바라보는 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전쟁 시기, 국가는 청년이었던 그들을 늙름하고 씩씩한 ‘대한의 건아’로 선전했다. 대대적인 환송행사와 환영행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문지면을 통해 상훈 포상과 전장의 소식을 수시로 전했다. 하지만 국가가 소비한 참전군인의 이미지는 종전과 함께 끝이 났다. ‘참전군인’이라는 단어는 이후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언어와 함께 쓰이고 있다. 참전군인과 관련한 사회 문제 뒤에는 전쟁포로, 라이따이한, 민간인 피해, 고엽제 피해, 전쟁 트라우마(PTSD)가 따라붙는다. ‘가스통 할배’, ‘태극기 할배’로 설명되곤 하는 ‘폭력’과 ‘갈등’, ‘불통’과 ‘꼰대’의 이미지까지 지닌 그는 그야말로 가부장적 구시대의 상징이다. 참전군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 또한 이 같은 사회적 평가와 맥락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참전군인과 그들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의미 있는 고민과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도 분명히 존재한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 ‘따이한’에서 ‘철수’되기

윤재현(2020)은 ‘고엽제에 노출된 월남전 참전군인의 삶의 재편성’ 연구에서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진단받은 참전군인을 심층 면담하였으며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들여다보는 연구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고엽제 후유증에 무지하여 고통을 감내했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결국 불확실성과 함께 삶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회의 한 구

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정미경, 김승용(2018)은 6.25전쟁 참전군인을 심층 인터뷰하여 참전 경험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들의 공통된 인식을 범주화했는데, 6.25전쟁 참전에 따른 특수상황(노무자, 공무원, 학도병이나 군번도 없이 참전했던 6.25전쟁의 특수성을 '참전군인의 모호한 위치에 따른' 내용으로 범주화함)을 제외하고는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비슷한 사례로 보아 소개한다. 예컨대 이 연구에서는 참전 트라우마, 사회적 지지의 결핍, 개인에 앞선 애국심 같은 범주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 사회적 지지의 결핍으로는 신체적 후유증, 살아남은 자의 외로움, 적은 보상 등 제한적인 사회참여 기회와 경제적 부담에 따른 외로움을 말하고 있다. 또 이들의 사회참여 정도가 당사자의 욕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최현숙(2016)은 책 「할배의 탄생」에서 베트남전 참전군인 이영식의 구술을 통해 전쟁에 관한 그의 생각과 삶의 근원을 찾아간다. '가난한 남성성의 시원을 찾아'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베트남전쟁'은 이영식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영식은 베트남전쟁을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그 전쟁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동일 선상에서 허윤(2017)은 '태극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를 통해 최현숙의 책과 등장인물을 함께 분석하였다. 참전군인 이영식은 전쟁터에서 불안과 공포를 겪었지만, 그것이 곧

‘베트남인에 대한 범죄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하며 ‘베트남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영식의 입장은 베트남 참전군인의 존재를 ‘베트남참전전우회’, ‘베트남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로 대표되는 보수파의 상징이자 ‘가스통 할배’로 그리는 것과는 다른 면모라고 정의한다. 또 참전군인 세대와 같이 해계모니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장년 저소득층, 저학력 남성들은 애국을 중심으로 국가에 복무해온 과거의 종속적 관계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옳고 그름은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국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네 삶은 언제나 미달일 수밖에 없다. 그 자기 비하의 고리를 끊고 우리 삶의 가치를 재사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진경(2015)은 한국 근대화 과정에 일어난 주변화된 노동으로서 군사노동, 성노동, 군대 성 노동, 이주노동을 이야기한다. 그중 군사노동으로서 한국의 파병, 특히 베트남 파병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베트남전쟁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과 대중문화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 황석영의 작품 『물개월의 새』와 『무기의 그늘』,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 안정효의 『하얀전쟁』, 박영한의 『머나먼 송바강』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파병 이데올로기, 군사노동과 매춘, 층위화된 남성성과 계급적 대리성을 들여다본다. 소설 속 등장인물은 베트남 전장에 있거나 혹은 귀환한 참전군인인데, 전쟁과 계급, 국가와 제국주의의 틈바구니에서 무너지고 분열된 자아를 상징하고 있다.

“사병으로 참전했던 군인들에게 귀국은 계급적 불평등 아래 진행된 ‘사건’이었다. 이들은 운 좋게 전장에서 살아남아 ‘귀국’했으나 제대로 ‘귀환’하지 못해 파국을 맞는다. 이들 소설은 1971년 이후 한국군 철수 시기에 발표됨으로써 내강외유한 반공 국민 국가의 역할을 되묻는 사회적 상징이 되기도 한다.” 참전군인의 귀환 서사를 다루는 작품들을 분석한 김주현(2017)의 연구는 전장을 겪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된 참전군인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황석영의 『돌아온 사람』, 『이웃사람』과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를 이야기한다. 김주현은 “그는 타이한에서 다시 평범한 ‘철수’가 되어야 했는데, 이 ‘철수되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전쟁을 겪은 이들은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처럼 전장의 기억은 이전의 ‘철수되기’를 방해한다. 여기에 가난한 시골 출신은 전장의 외상을 추스를 여유도 없이 생존 전선에 내몰렸으므로, 복귀를 위해 거쳐야 할 내적 갈등 같은 통과의를 치르지 못한 채 사회에 편입되었다.”라고 말한다. 전쟁 후 다시 삶으로 돌아와야 했던 참전군인의 애환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사실상 우리 사회는 전쟁을 경험한 이들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타이한에서 다시 철수되어야 했던 그들, 귀국했으나 귀환하지 못한 수많은 그들에 대해 얼마나 배려하고 관심을 가졌는지 돌아봐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어찌면 참전군인은 그들 스스로 사회적 지위를 만들고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강유인화(2013)는 베트남전쟁 참전군인들에게 국가유공자라는 지위 변화를 가져온 참전 기념물 건립 운동에 주목하여 참전 기념에 내재한 모순을 밝혀내고자 하였는데, 참전의 의의를 강조한 한국 정부와 달리 참전군인들은 잊힌 존재였으며,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전쟁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기념물 건립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가 제기되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은 가해자의 지위를 불러오는 베트남 민간인 피해의 기억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참전군인들이 벌인 기억 투쟁의 결과 국가유공자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전쟁의 고통스러운 피해자로 모습을 드러냈던 참전군인들은 명예로운 전사(戰士)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피해와 가해의 기억은 삭제·봉합된 채 국가 유공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심주형(2002)은 참전군인의 기억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경합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전쟁에 대한 한국의 참전 기억이 오늘날 새롭게 사회적으로 재생되고 재구성되는 양상을 ‘참전군인’을 중심으로 바라보았다. 베트남전 참전 문제는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이정표와 같은 사건으로 종종 이야기되어 왔음에도 직접 참전한 참전군인들에 관한 관심은 미약하였고, 그 기억이 상호 경합하며 사회적으로 유통, 통제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0년대 초 고엽제 피해 문제가 사회적으

로 이슈화된 이후 참전군인들은 빠르게 조직화했으며, 1999년 말에는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 문제가 전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켜 베트남전 참전을 둘러싼 다양한 기억이 상호 경합하는 담론의 장이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위에 소개한 논문들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쟁 기억과 기억의 충돌, 참전군인의 존재와 기억의 주체로 등장하는 그들의 활동을 연구한 것이다. 또 참전군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재와 민간인 학살을 둘러싸고 피해에서 가해의 위치로 전환된 그들의 기억 투쟁을 조망하고 있다.

###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방법**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을 둘러싼 참전군인과 시민의 인식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김성란(2011)은 그의 논문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베트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에서 민간인 학살 문제와 관련하여 참전군인이 호소하는 억울함과 부당함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참전군인 개개인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역사 교과서에 민간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넣어야 한다는 청원에 달린 댓글과 『한겨레21』 민간인 학살 관련 기사를 제목과 내용, 사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참전군인 스스로 떳떳하고 이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참전군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는 필연적으로 배척할 수 밖에 없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래서 나오는 다른 존재’라는 인식이 조금 더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가 참전군인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참전군인이 주장한 ‘당당하고 떳떳하며 이타적인 모습에 담긴, 같은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외상으로 잃어버린 신념, 품위, 용기와 같은 자존적 요소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결국 참전군인의 ‘민간인학살 사건’ 부인에는 ‘우리’의 역할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의 폭력이 그대로 용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통의 표현에 서툰 그들의 억울함과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들에 주목하여 소통의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김성란: 246)

“언론 속 참전군인의 모습이, 비록 ‘사실’ 전달이라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결과라고는 하나,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이 2배나 더 많이 그려짐으로써 정보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대중매체를 통한 참전군인들의 긍정적 이미지 만들기가 그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자기 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이인수의 제언(2004: 23)을 떠올리게 한다.” (김성란: 247)

김성란의 주장에는 참전군인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시선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엄격함이 존재한다. 진실규명이라는 시대의 과제

앞에 소통과 이해, 배려를 담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뼈아프다. 대중매체 속 부정적 인식에 갇힌 참전군인의 존재를 긍정적 존재로 인식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런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참전군인에 대한 척박한 인식과 연구 속에서 이들 논문을 만난 것은 참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참전군인을 어떤 상황에 부닥친 수동적 존재로 해석하고 그것이 전쟁이든 학살이든 ‘사건’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참전군인의 위치를 ‘피해’나 ‘가해’ 혹은 그 둘을 모두 가진 ‘비운’의 자리에 위치시킬 뿐이었다.

### **평화를 실천하는 주체로 참전군인 바라보기**

평화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참전군인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평화 활동의 동료로 함께할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따로 또 같이의 역할을 고민할 때이다. 우리가 만난 참전군인은 1965년 전투부대 첫 파병부터 1973년 철군 기간까지 베트남 전장을 두루 경험한 이들이다. 맹호, 백마, 청룡 전투부대에 배속돼 파병 기간에 수많은 작전과 전투에 참여했다. ‘어떤 이’는 두 번이나 파병을 다녀왔고, ‘어떤 이’는 전투 중 부상하여 상이군인이 되었다. 8년 6개월이라는 긴 참전 기간에 수많은 군인이 다양한 위치에서 전쟁을 경험했다. 이 연구는 저마다 다른 전장의 경험 속에서 전투병으로 참전했던 이들의 전쟁 기억과 평화에 대한 인식에 주목한다. 이를 깊이 들여다보기 위한 과정으로 참전

군인 심층 인터뷰와 평화에 관한 인식을 설문조사 분석 결과로 제시한다.

다만 연구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평화활동 속에서 인연을 맺은 몇몇 참전군인의 인터뷰만을 담았으며, 평화 인식 관련 설문조사 표본도 크지 않아 그 결과가 참전군인의 전반적인 인식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연구 기간과 규모, 연구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 속에 가능한 최대한의 목표였으나 부족함이 많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주제에 깊이 있게 접근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알아도 외면했던 그들의 숨어 있는 요구와 의지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싶다. 이해와 소통을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된 참전군인을 만나고, 평화의 주체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본다.

## 개념적 배경과 실천적 접근

참전군인의 평화활동을 다루는 이번 연구에서 ‘평화’와 ‘평화운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광복 전후에 태어나 어린 시절 6.25전쟁을 겪고, 청년이 되어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그들, 독재시대를 거쳐 여전히 분단사회에 사는 참전군인에게 ‘평화’라는 두 글자는 젊은 세대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소중하고 절실한 단어일지 모른다. 우리가 ‘평화’를 ‘평온’과 ‘일상’, ‘행복’ 등과 같은 추상적 감정으로 정의한 데 비해, 그들에게 ‘평화’는 지켜야 할 그 무엇이면서 지키기 위한 절박한 행동과 같은 구체일 수도 있다. 살아온 시대와 환경의 차이, 20~30년 넘게 차이 나는 세대간의 인식 저편에 ‘평화’를 만나기 위한 정의를 찾아야 했다.

평화학자 갈통은 평화를 단지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조용한 상태,

즉 ‘소극적 평화’나 ‘물리적 평화’로만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넘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개념으로 확장해 정의한다. 갈통은 ‘물리적’ 평화는 힘으로 질서가 만들어져 거기에 순응하고 침묵하는 경우가므로 깨지기 쉽고, 전쟁 직전의 일시적이고 과도적인 상태를 지적한다.

그가 정의한 ‘구조적 평화’는 정치적 억압,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차별, 문화적 배제 등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폐지하고 적절한 제도와 기구로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필요(needs)가 충족돼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이다. 또 ‘문화적 평화’는 구조적 평화를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태도와 관행이 내면화된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소극적 평화는 구조적 평화와 문화적 평화 없이는 그 한계가 명백하고, 폭력의 위협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갈통의 평화론이다. 이 구조적 평화와 문화적 평화를 묶어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라 일컫는다(서보혁 정육식, 2016: 22).

갈통의 이론을 토대로 평화를 적극적 평화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평화운동’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평화운동은 말 그대로 평화를 추구하는 운동이다. 평화운동은 ‘힘에 의한 평화’에 비판적이거나 이를 거부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자’라는 정신으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사회 운동이 바로 평화운동이다. 또한, 국가주의나 민족주의가 배타성을 띠면서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 국제사회를 정글과도 같은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세계로 남겨두기보다는 서로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평화운동을 두고 ‘순진하고 이상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사회운동은 현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를 지향하는 ‘진보’와, 더 나은 상태를 원하는 사람들의 확대와 실천을 추구하는 ‘연대’를 두 축으로 한다. 평화운동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소수가 꿈꾸면 이상으로 끝나지만, 다수가 꿈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은 평화운동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평화운동은 세 가지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평화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생명 존중이라고 할 때 전쟁뿐 아니라 빈곤, 환경 파괴, 차별 등도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둘째, 1990년을 전후한 세계적인 탈냉전 이후 국가와 군사 중심의 안보 개념을 넘어 개인의 안전과 복지 문제까지 고려하는 ‘인간 안보’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상호연관을 가진 것처럼 이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운동들 역시 상호연관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서보혁·정육식, 2016: 64-68).”

정리하자면, 평화운동은 ‘비폭력’, ‘진보’, ‘연대’의 특성을 보이며, 빈곤, 환경 파괴, 차별을 지양하는 생명 존중, 개인의 안전과 복지,

평화운동 간의 상호연관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이다. 이러한 지향을 두고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을 평화운동가라고 한다. 평화운동가는 반전 평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집회와 시위는 물론이고 시민을 상대로 한 강연, 세미나, 유인물 배포, 언론 기고와 출연, 인터넷과 SNS 활용 등 다채롭게 활동한다. 단순한 반대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여 여론과 정책의 변화를 만드는 것 또한 평화운동가의 몫이다.

평화이론을 토대로 참전군인이라는 특정 그룹에 속한 이들이 펼치는 활동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참전군인이 겪은 전쟁 경험의 성찰 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과 앞서 언급한 평화의 개념에 입각한 관점을 가졌는지를 중심에 두고 고민을 이어가 본다. ‘운동’과 ‘활동’의 용어 사용에서 ‘운동’이 기존의 사회구조와 제도를 ‘변화·개선’시키기 위한 ‘자발적’ 참여와 ‘조직적’, ‘집합적’, ‘연속적’ 의미를 내포하므로, 참전군인 개개인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연구에는 ‘활동’을 주로 사용하였다.

우리가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사례와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는 이러한 평화운동의 정의 아래 진행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선행이나 봉사, 집단의 이해와 이익을 중심으로 한 참여와 행동,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 참여나 봉사활동 등은 ‘평화’와 ‘평화운동’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외하였다.

chapter 3.

참전군인의 평화활동을 찾아서  
: 한국 사례

3장에서는 ‘평화’와 ‘평화활동’ 정의 아래 한국 참전단체와 참전군인, 참전군인 가족의 평화활동 사례를 찾아 나선다. 한국의 참전 관련 단체 활동을 들여다보기 위해 문헌 조사와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장에는 총 네 명의 참전군인 심층 인터뷰가 실려 있다. 그들의 활동을 평화활동 사례로 소개하고 평화에 대한 생각을 들어본다. 평화재향군인회 창립자이자 1965년 맹호부대 1진으로 월남에 간 전투소대장 표명렬, 1971년 맹호부대 포병 하사관으로 파병되어 귀국 직전 안케패스전투에 참전한 김낙영, 1969년과 1971년 남들 한번 가기도 힘든 월남전을 두 번이나 경험한 백마부대 전투병 양정석, 1967년 청룡부대 전투병으로 참전해 크게 부상을 뒤 귀국한 상이군인 류진성. 그들은 파병 초기부터 말기까지 수많은 전투와 작전에 투입된 참전군인이다. 그들은 누구보다 월남을 뜨겁게 만났고,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 참혹함을 목격했다. 1945년 전후에 태어난 그들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두 번의 전쟁을 겪었다. 피카소의 작품 「한국에서의 학살」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어린아이로 총부리 앞에 섰던 그들은 청년이 되어 총을 들고 전장에 섰다.

우리가 만나지 못한 참전군인의 이야기, 참전군인의 고통을 함께 짚어준 가족의 평화활동도 소개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활동 속에서 만났거나 언론 보도, 문헌 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였는데, 향후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자세히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더불어 참전군인의 평화에 관한 인식과 평화활동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47명의 참전군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표본이 크지는 않지만, 더욱 많은 참전군인의 생각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다.

###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2021년 7월 기준, 국가보훈처 지원금을 받는 보훈공법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총 14개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이다. 참전단체 관련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 검색을 통하여 현재까지 각 단체가 진행한 활동(또는 사업) 중 평화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가장 활발히 대외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베트남전 관련 공법단체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평화 활동을 살펴보았으나 소개할만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베트남전쟁을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기관을 후원하고 있는 경우를 사례의 하나로 소개한다.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은 지난 20여 년 동안 베트남에 다양한 형태의 요양원과 복지센터, 경로의원 등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의 초대 이사장 각현 스님은 “(베트남은) 70년 전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군이 전쟁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한 역사적인 나라이며, 전쟁이 끝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수년간에 걸쳐 너무나 큰

상처를 입은 우리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도움을 주고 싶은 나라를 꼽는다면 단연 베트남을 선택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을 함께 도와야 하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우리 국군 장병이 사망하였으며, 또한 우리 국군들이 죽인 베트남인은 얼마나 많았을 것인가?”, “한국군은 베트남전쟁으로 최신 무기로 무장할 수 있었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베트남은 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아시아의 빈국이다”라며 “상처를 어루만지고 동반 성장하는 길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현재 ‘사단복지법인 국제연꽃마을’ 홈페이지 하단에 공식 협력단체로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의 이름과 로고가 있으며, 배너를 누르면 이 단체 사이트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 사업이 아닌 한 단체에 한정된 후원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평화 운동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1997년 11월 세계 재향군인연맹(WVF: World Veterans Federation)이 제22차 서울 총회를 서울 롯데월드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들은 각 나라의 재향군인단체로 구성된 국제 비영리기구(NGO)이며, 제대군인과 참전군인 유가족의 권익 보호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 1950년 국제재향군인단체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던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덴마크, 유고슬라비아 등 7개국 참전군인단체 대표들이 모여 설립한 것이 출발이었다. 지금의 이름은 1951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인데, 1952년 창설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1961년부터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날 총회는 각계 대표와 해외 6.25전쟁 참전군인, 상

이군경, 향군회원 등 1,3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다. 총 5 일에 걸쳐 진행된 총회에서 중동 평화 문제, 전쟁 희생자의 인권 문제, 핵무기 생산 및 핵실험 금지 등 50여 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특히 여성상임위원회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쟁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폐회식에서 ‘국제평화를 위한 세계 제대군인 서울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참전군인으로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자 다양한 접근과 심층적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세계 재향군인연맹이 전 세계 반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조직이며 이에 한국도 주요 성원으로 함께 연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 행사의 호스트가 대한민국의 재향군인회였다는 이유로 이 사례를 평화활동이라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사실상 한국의 재향군인회가 지닌 역사성과 현재의 활동을 살펴보면 세계재향군인회와의 연대가 지속 가능한 평화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후지이 다케시(2004)는 6.25전쟁 전후 제대군인들의 조직으로서 재향군인회의 출발과 개편 등을 깊이 있게 조명하였는데 제대군인이 아닌 현역군인 조직으로 출발한 재향군인회가 이승만 정권 시기 정치적 동원 체제 아래 기능해 온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현 재향군인회의 정체성과 활동은 이런 역사성에 기인하고 있는데 최근 아프간전쟁 종료와 미군 철수에 관한 입장문에도 이러한 정체성이 나타난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남의 일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재향군인회의 입장에는 아프간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도 국가안보와 군사대비태세,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 입장문은 전쟁으로 파괴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평화를 촉구하는 내용보다는 ‘안보’와 ‘동맹’, ‘군사력’에 초점을 맞춘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미국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에서 발표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에 대한 성명’은 이 전쟁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고 있다. 전쟁 피해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으로는 아프간 난민의 인도적 지원과 재정착 지원, 책임자 처벌, 전쟁 책임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아프간 참전군인에 관한 관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처럼 한국 재향군인회와 확연한 견해 차이를 보인다. 이렇듯 미국과 다른 사회적 조건 속에서, 과연 한국 사회 참전군인 평화활동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까?

# 평화를 사랑하는 제대군인 여러분을 모십니다

## : 평화재향군인회와 표명렬

한국에도 평화를 지향하는 참전 관련 단체가 있다. 2005년 출범한 ‘평화재향군인회’는 지금은 활동이 뜸하지만, 출범 당시만 해도 한국 사회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 단체는 표명렬 예비역 육군 준장을 중심으로 예비역 장병과 시민이 모여 만든 단체이다.

평화재향군인회는 친일 군부독재 세력에 의해 잘못 뿌리내린 군대 문화를 개혁하고 인간 존엄의 ‘민주군대’를 제시하며, 제대군인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다. 6.25전쟁 전후 군과 경찰에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추모하고, 한강교 폭파사건으로 희생된 원혼을 위무하는 민족화해사업을 주요 활동으로 삼는다.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군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자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파병 방침에 반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고, 다양한 반전 평화활동에도 함께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제대군인 여러분을 모십니다.” 당시 세상은 평화를 향한 군인들의 목소리를 반겼다.

그러나 평화재향군인회가 해외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적론 교육 폐지를 부르짖는 반대편에는 이라크전 참전 촉구, 국가보안법 사수를 외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있었다. 이들은 ‘평화재향군인회’를 불법단체로 낙인찍고 단체를 이끄는 표명렬 대표를 반미·친북 성향의 ‘빨갱이’라며 공격했다. 단체명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위반하였다”<sup>1)</sup>라며 법적제재에 나서는 등 강한 견제를 하기도 했다.

앞장서 소성리 사드(THAAD) 배치를 반대하고,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 재무장을 비판하고,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앞장서는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참전군인의 평화활동에 가까웠다. 평화를 사랑하는 제대군인들의 모임, 평화재향군인회를 만들고 이끈 참전군인은 어떤 이들일까? 단체 활동을 넘어 개인의 평화에 대한 이해와 활동은 어떤지 만나보기로 했다. 창동역 부근의 마을 카페에서 평화재향군인회를 이끌었던 표명렬 예비역 준장을 만났다.

---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박정희정권 시절인 196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재향군인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1983년 12월에 개정된 제2조 4항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한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021년 현재 국가보훈처 소관 공익법인 중 가장 큰 규모(재무 현황, 고용직원 수)의 단체이다.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중위 시절인 1965년 맹호부대 소총 중대 요원으로 월남에 갔다. 자신의 삶을 담은 책 『왕따 인생 장군 표명렬』이 곧 출간될 것이라며 책의 내용 중 월남전 참전 부분을 준비해가지고 나와 보여주었다. 월남에 왜 가게 되었는지 질문하니,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등 거창한 대답 보다는 “명령 나니까 그냥 갔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평화를 사랑하는 괴짜 군인은 평화를 말하며 고된 인생살이를 경험했다. 이야기 내내 군인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여지없이 깨졌다. 그는 지금도 글을 쓰고 생각을 나누며 평화운동을 하고 있다.

평화재향군인회(이하 ‘평군’)는 어떤 계기로 만드셨어요? 활동 범주로 다양한 평화 인권 주제를 두루 다루고 있어 놀랐어요. ‘평군’은 이미 저희가 연구하고 지향하는 참전군인의 평화활동을 이전부터 해 오셨더라고요.

이라크 파병 반대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파병을 반대하는 글도 쓰고 집회에서 발언도 했지요. 그런데 시청 앞에서 전직 장군이라는 사람들이 군복 입고 성조기를 요란하게 흔들면서 파병 찬성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국민이 파병을 반대하는데, 평화의 소중함과 전쟁의 비참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군인을 전쟁터에 보내자고 하다니. 완전히 충격이었죠.

그즈음 신문에서 미국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회원들이 광주 망월동에 다녀갔다는 소식을 보았어요. 그때 딱 생각이 났지. “아하, 우리도 평화재향군인회를 만들어야겠다!” 얼마 후에 한 신문기자가 찾아와 앞으로 계획이 있냐고 묻길래 “미국처럼 우리나라에도 평화재향군인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게 대서특필 되었어요. 말이 씨가 되었죠(하하). 아무튼, 이때다 싶었어요. 이런 시기에 군대 경험이 많은 사람들, 전쟁을 겪어 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한국 사회가 참전한 분들을 보는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 같아요. ‘군복 입고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할아버지’랄까. 그건 굉장히 집단화된 모습에 불과한 데 말이에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혹은 내지 못하고 있는 분이 훨씬 많을 거라고 봐요. 미국은 오히려 참전군인이 앞장서서 평화에 목소리 내는 경우도 많고, 사회도 그러한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잖아요. 미국에서 열리는 이라크전쟁, 아프간전쟁 반대 집회 가장 맨 앞줄에 참전군인들이 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평화재향군인회는 참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주축인 미국 내 우수한 반전평화운동단체예요. 우리 평화재향군인회와도 이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지요. 그들 대표단과 함께 충북 노근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겁니다. 6.25전쟁 기간에 미군에 의한 노근리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미국은 사과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책임 있게 후속 조치까지 취하지는 않았어요.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회원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 주민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싶어 했어요. 대충 둘러보고 관광하려고 온 게 아닌거죠. 학살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어요.

참전군인의 평화활동 사례로 ‘평군’을 특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군인이 아닌 다른 구성원들과 새로운 시민단체를 꾸리거나,

본인이 다른 평화단체에 속해서 활동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직접 ‘평군’을 만들고,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이 평화운동의 중심이 되었다는 걸 중요하게 보았어요. 가능성을 넘어 실제로 구체적인 활동도 펼쳤고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잔인함과 참혹함을 알지요. 전쟁이 인간을 어떻게, 얼마나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지 생생히 경험한 사람이 반전 평화운동을 하면 얼마나 내용이 알차고 영향력 있겠어요? 미국처럼 참전군인이 반전평화운동 핵심으로 앞장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전투를 직접 해봤으니 전쟁의 비참함을 알잖아요. 그걸 내 자식이나 후손이 또 겪도록 만들 수 없지 않겠어요? 평화재향군인회가 창설된 당시에 미국평화재향군인회 대표단이 축하 방문을 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네 나라는 쓰라린 전쟁을 그토록 많이 겪지 않았나. 그런데도 왜 그동안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제대군인 단체가 하나도 없는 지 참 의아하게 생각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

전쟁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잔인함과 참혹함을 알지요.  
전쟁이 인간을 어떻게, 얼마나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지  
생생히 경험한 사람이 평화운동을 하면  
얼마나 내용이 알차겠어요.

”

**‘평균’에 소속된 회원들은 대부분 참전군인인가요? 어떤 분들이 뜻을 함께하고 어떻게 모이게 된 건지 자세히 듣고 싶어요.**

참전군인이 다수는 아니지만, 회원이 많을 때는 대략 6,000명에서 1만 명까지도 있었어요. 드러내 놓고 참여하는 직업군인 출신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평균 활동을 하면 주위로부터 왕따되기 십상이니까 별 수 있나요(하하). 그래도 간간히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죠. 단체 시작부터 함께 한 사람들은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동기는 그런 거죠, 우리는 쉬지 않고 전쟁을 치뤘잖아요. 북한과도 전쟁, 베트남에 가서도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까? 전쟁의 아픔을 가진 군인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중에 평화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럿 있었고, 내가 단체를 만든다고 하니 동의하며 가입한 거죠. ‘평균’을 막 만들었을 때 언론도 굉장한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건 그만큼 이런 단체가 필요했다는 증거예요. 나는 오히려 때가 늦었다고 봤죠.

**그 점이 참 의아해요. 분명히 참전군인은 전쟁터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잖아요. 전쟁 없는 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감할하실텐데. 그런데도 왜 그런 경험이 평화활동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걸까요?**

비단 군인 출신만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오랜 세월동안 친일독재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부와 권력을 독점해왔잖아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면 적색분자로 몰아 완전 매장시켰죠. 그러니

대부분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체념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존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나서보야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팽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즘은 ‘평균’ 활동이 뜸한 것 같네요.**

지금은 제가 직접 단체에 관여하지 않아요. 저는 가족의 건강 문제도 있고 해서, 완전히 손을 떼 상태죠. 우리나라에서 평화활동을 한다는 게, 잘 아시겠지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반대 세력이 막강한 상태에서는 정말 쉽지 않죠. 나도 그런 공격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재향군인회에서 ‘평균’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나를 제명했어요. 명분은 단순하죠. 단체 이름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법에는 ‘재향군인회’라는 이름을 다른 단체가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딱 한 개의 재향군인회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미국에는 재향군인회가 각양각색으로 수십 개가 있어요. 견제 조직이 없으니 그동안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얼마나 부패했겠어요?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은 내가 이라크에 파병한 국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북 적개심 교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을 하니깐 ‘빨갱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몰아간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게 두려웠으면 시작도 안 했지. 나는 잘못된 군대문화를 개혁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나 받고 편안하게 품이나 잡으라고 장군 시켜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나는 장군이 된 이유와 목적을 군대 개혁에 두고 평생 도전해온 겁니다. 육사 출신, 장군 출신 중에도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비록 육사 출신 동창회로부터 제명당하고, 장군단 명단에서도 나를 삭제해버렸지만 저 스스로는 오히려 육사와 장군의 명예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라는 사관생도 신조를 지금까지 지키려 애써왔다 자부하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월남전 참전 단체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이런 곳이잖아요. 이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대로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은 오히려 말이 없어요. 그런 곳에 잘 기웃거리지 않지. 지금까지 그런 단체들은 순전히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해온 측면이 많아요. 지금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런 단체 간부들이 개인적인 이권을 챙기는 데 주력해온 경향이 많이 있지요.

**베트남전쟁에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월남에 왜 갔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보통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자유수호를 위해”, “공산주의 침략을 막기 위해”,

“6.25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미국에 은혜를 갚기 위해”라고 대답하겠죠? 저는 그런 거룩한 이유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육사(육군사관학교)를 택했고, 덕분에 무료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니 국가가 나의 목숨을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응해야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지요.

동해안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 중대장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지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기백 소령께서 전화로 자기가 파월 기갑연대 작전 주임으로 내정되어 나를 작전보좌관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고 의향을 물었어요. 주저 없이 “네, 가겠습니다!”하고 대답했죠.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우리 집안 독자거든요. 당시에는 월남 가면 다 죽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러니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파병이 결정되었다는 연대장 편지가 집에 전해졌을 때, 온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죠. 할아버지께서는 늘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근엄하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종갓집 장손 외아들인데, 우리 집안 대가 끊길 판인데 어찌 사지(死地)로 보낸단 말이냐!” 하고는 무조건 나를 집으로 납치해오라 불호령을 내리셨대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께서 면회를 오셨죠.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눈이 움푹 들어간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참으로 불효막심한 놈이지요. 어머니께서 너는 외아들이라 안 된다 말리셨는데, 제가 “어머니! 자식이란 외아들이건 아니건 다 중

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가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가서 전사하게 된다면 그 부모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하고 대꾸하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건 아주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당신 손자에게 “너희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시며 당시 이야기를 하셨대요.

### **개인적으로 월남전 참전 경험이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군대 생활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나는 주저 없이 월남전 참전이라고 말해요. 사실 당시에 장교들은 가기 싫다고 하면 안가도 됐거든. 나한테도 최종 면담에서 본인이 원치 않으면 파월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가겠다고 했지요. 결국 1965년에 전투부대 1진으로 파월되어 맹호부대 소총중대에서 1년간 사지를 넘나드는 전투를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나는 훈장 하나 없거든요? 아마 당시에 소총 중대에서 근무한 장교 중에 나처럼 훈장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훈장 받을만한 일을 한 것이 없으니 다른 병사들에게 주라고 했지요. 아마 월남에서 어떤 부대가 무슨 공훈으로 훈장을 받았는지 제대로 전수조사 해보면 문제가 많이 발견될 거예요.

### **베트남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퀴논항에 도착해서 완전무장하고 트럭행렬을 지어 요란스럽게 지나

가는 데도 길가 논에서 모심는 농부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들의 무관심, 백안시하는 표정을 보면서 ‘아,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배했구나!’하고 직감했어요. 민심을 얻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모택동의 ‘민중론’이 있지 않습니까. 월남인들의 마음, 민심을 잃었으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 생각했지요. 중국으로부터, 프랑스로부터, 급기야 미국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있는 월남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가여웠어요.

**월남에서 돌아오자마자 정훈장교를 하셨네요. 어떤 이유로 병과를 바꾸셨나요?**

월남전에서 미국 군대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군대는 부하를 결코 상급자의 진급수단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우리 군도 미국처럼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중시하는 민주적 군대로 바꾸겠다고 결심했지요. 그래서 귀국한 이듬해에 바로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정훈병과로 바꾼 거예요. 이후 국비로 민간대학에 학사편입해서 정치 사상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지요. 다만 정치심리전 학교에도 두 차례 유학을 다녀왔고요. 연구를 거듭해서 우리 군의 정신전력에 관한 이론 체계를 세웠고 정신전력학교를 창설하면서 바쁘게 살아왔어요.

제대 후에 오자복 국방부장관께서 전쟁기념사업회 기획이사를 맡아 사업회 활동 방향과 기초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위원장 같은 최고 실권자들이 거의 친일 세력이다보니, 민족군대를 부르짖는 저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지요. 사실 그들이 노태우 선거 공약에 ‘6.25전쟁기념관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넣도록 해서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당연히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게,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전쟁을 기념한다니 말이 되느냐! 더구나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우리 민족은 홍익인간 건국이념에 바탕을 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잖아요. 평화기념관을 만들어야지 왜 전쟁을 기념해? 아무튼 그 얘기를 비롯해서, 사사건건 계속 부딪히다 결국 사직서를 쓰고 나와 버렸어요. 거기서의 일화가 많지요.

“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게,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전쟁을 기념한다니 말이 되느냐!

”

아이고, 그때 끝까지 계시면서 싸웠어야 전쟁기념관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거기 있을 때 전쟁기념사업회가 주관해서 ‘민족진혼곡’을 만들자는

주장도 했어요. 남북한의 모든 피해자, 모든 참전자, 영혼을 위무하는 세계적인 대 역작을 하나 만들자고 제안했지. 그런데 “북한 놈들 추모하는 노래를 왜 국가가 만들어?”라고 하면서 딱 잘라 부결시켰어요.

미국 남북전쟁 최고 격전지였던 게티스버그(Gettysburg)에 국립군사공원(National Military Park)이 있어요. 내가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공원 곳곳에 ‘우리 미국 역사에 이렇게 아프고 쓰러진 상처가 있다’, ‘북이나 남을 가리지 않고 참으로 많은 희생이 따랐다’ 이런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무장지대를 평화공원으로 만들자고 일찍이 한겨레신문을 통해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모두 마이동풍이야.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전 세계 어떤 나라 선진 군대에도 ‘주적’을 명시하여 장병들에게 적개심을 고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 우리 군대는 적개심을 부추기는 ‘주적론’이라는 엉터리 교육을 해왔어요. 이건 특정 정치 집단을 위한 편향된 세뇌교육일 뿐이지 군대에서 필요한 정신교육 내용이 아니에요. 군인은 더욱 인간에 대한 애정의 평화의식을 지니고 있어야만 해요.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평화를 지키고 개인의 삶에 행복을 주기 위해 준비하고 훈련하는 집단이어야 해요. 전쟁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어요.

처음 만나서 인사를 드렸을 때 전쟁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어요. 월남에서 돌아온 후에 후유증이 있으셨나 봐요?

두코 전투나 맹호5호 작전 같은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를 경험하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후유증이 아주 오래도록 남아서 거의 10년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운 생활을 보냈지요.

꿈에서 나 홀로 고지를 지키고 있는데 나를 향해서 적들이 개미떼 처럼 기어오르는 겁니다. 소리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병사가 아무도 없어요. 계속 쫓기 쫓기는데 아무리 총을 쏘도 총알은 나가지 않고. 빨리 도망은 가야 하는 데 발은 안 떨어지고. 늘 이런 소름끼치는 악몽을 꿴다고요. 아내는 결혼 후에 내가 잠을 자다 불현듯 버둥거리다 악을 쓰며 소리 지르고 식은땀까지 흘리는 모습에 너무 놀랐다고 그래요.

우리 군이 합리적인 제도를 갖추고 진정으로 참전군인을 귀하게 여긴다면, 밖으로 나타나는 외상이 없더라도 실제로 직접 살육의 전투를 했던 분들은 반드시 정신의학적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적절한 심리 치료를 받도록 했어야 해요. 그런데 참 미봉적인 태도였다고요. 이건 재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의 문제이죠. 나라의 부름에 따라 목숨 바쳐 싸웠는데도 진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국민에게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베트남전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가 참전군인을 높이 받들고 인정해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월남 전쟁은 참으로 부끄러운 전쟁이지요. 그러나 전쟁의 성격이 그러하다고 해서 참전군인까지 부끄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어떤 이유로 갔든 지 간에 모두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을 감내했던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당시 우리나라는 배경 있고 많이 배우고 돈 있는 금수저 자제들은 대부분 위험한 곳은 어떻게든 피해갔어요. 월남전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우리 군 5,000여 명이 전사했는데 그중에 장군 아들, 장관 아들, 국회의원 아들, 대기업 사장 아들, 고위공직자 자제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거의 가난하고 힘없는 민초들만 희생당한 것이지. 목숨 바쳐 위험한 전쟁터에 간 사람들을 소홀히 대접해서는 안 되지요. 국가가 이런 분들을 보다 큰 관심으로 보살피고, 보듬고, 보상받도록 해야죠.

“

월남 전쟁은 참으로 부끄러운 전쟁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성격이 그러하다고 해서

참전군인까지 부끄럽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어떤 전쟁이던지, 어떤 이유로 갔던지,

모두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을 감내한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

참전하신 분들이 건강한 자아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한 시작은 ‘말하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끌어내고,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런 활동이 쌓이면 평화 활동 중심으로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활동을 크게 기대합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은 방식은 필요치 않아요. 평화를 위한 군대라는 가치를 들고 함께 나서면 더불어 새로운 힘이 생길 거라고 봐요. 폭력적 군대 문화에 주눅 들지 않아서 오히려 제대로 상황을 인식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해안을 가졌으니까요. 군인과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롭고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기대합니다.



창동역 마을 카페에서 참전군인 표명렬을 만나 이야기 나누었다.  
왼쪽부터 김낙영, 표명렬, 석미화. © 최나현

## 월남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 김낙영

한국 사회에서 군인이, 그것도 전쟁을 경험한 참전군인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낯설고 드문 일일까? 연구 과정에서 만난 참전군인은 한결같이 ‘평화에 대해 말하는 참전군인은 드물고 이해도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그들 스스로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김낙영은 1971년 맹호부대 포병 하사관으로 월남에 갔다. 귀국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떠나기 며칠 전 안케패스전투에 투입되어 다 싸 놓았던 더플백을 풀었던 사연도 있다. 작전명령이 떨어지면 제발 살아서 돌아오게 해 달라던 기도가 막상 작전에 투입되면 죽음 앞의 긴장이 지긋지긋해 베트남이 나를 제일 먼저 쏘게 해 달라는

기도로 바뀐다는 생생한 경험담도 자신의 자전적 소설에 꼭꼭 눌러 담았다. 김낙영은 전쟁의 참혹함을 겪으며 ‘무소유’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전쟁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삶이 적어도 지금보다 평안하고 아름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에 건너가 살기도 했고, 미국에서 평화사진전을 수차례 열기도 했다. 몽골에 국제평화 마을을 세우고픈 꿈도 있다. 월남에 다녀온 게 창피하고 숨기고 싶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월남에서 겪은 경험을 책으로 내기도 했다.

김낙영이 개인 활동을 넘어 평화단체와 본격적으로 함께한 해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평화박물관이 주최한 베트남 전 한국군 민간인학살피해자 초청 사업으로 한국을 찾은 피해자 응우옌티탄과 응우옌편련을 만났다. 이후로도 시민과 청소년에게 자신의 참전 경험을 말하는 자리가 생길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전쟁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전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가. 베트남전쟁은 끊임없는 고민과 과제를 남겼고, 그는 여러 사람과의 대화와 만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싶었다.

2015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처음 방한했을 때 교류 활동에 참여하셨어요.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평화활동으로는 처음이었죠?

공식적으로는 그때 베트남 사람들하고 만난 게 처음이긴 하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작가한테 연락이 왔어, 그날 이런 행사가 있는 데 오실 수 있냐고. 특별히 “월남 참전군인이 오기 어려운 자리이고 꼭 와야만 하는 자리도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거든? 어떤 행사인지 뭐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못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다른 월남 참전군인들이 근처에서 휘방을 놓아서 행사도 제대로 못 하게 되었다. 원래 하려던 장소에서 다른 데로 급히 옮기기도 했고, 충돌도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는 들은 것 같아. 그러면서 나보고 “와서 한마디 해 달라”고 했거든.

맞아요. 그때 베트남전 참전 단체들이 베트남 피해자가 머무는 숙소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 근처에서 계속 항의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도 참전군인이시잖아요. 같은 군인인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대치하게 된 상황이 충분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왜 행사에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평화에 대해서, 특히 한국과 베트남의 평화에 대해서 활동하는 단체라고 들었거든. 나도 내 나름대로 미국에서부터 평화를 공부하고 활동도 했으니까 행사 취지나 내용에 동의한 거지. 그리고 나는 참전단체 활동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월남 갔다 온 것을 “우리는 용병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러 갔다!” 이렇게 큰소리치지만, 나는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나한테 월남 갔다 온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사람들이랑 만나지 않고 접촉 자체도 안 했어. 남의 나라 전쟁하는 데 갔다 온 게 무슨 자랑이야? 자기 나라가 반으로 강제로 갈려서 대치하고 있는 데에 뭐 좋다고 끼어 들어서 간섭하고 방해했냐는 말이야.

**베트남전쟁 시기에 있었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행사에 참여할 때에도 알고는 계셨던 거죠?**

언제부터 알았냐면..., 그건 확실히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가 월남에 있을 때부터지. 병사들 사이에서 이미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다고. 우리 맹호부대가 아주 무섭고 거침없으니까, ‘맹호’라고만 해도 월남 사람들이 공포에 벌벌 떠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월남 사람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죽였네, 죽여서 뭘 어떻게 했네, 이런 뭐 별의별 이야기가 엄청 많이 돌았다고. 한국군이 한 사람이라도 당하면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뭐 그런... 근데 그거는 그냥 들리는 소문이지, 제대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알게 된 것은 최근에 들어서야.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인가? 아니 8, 9년 됐나? 아무튼 근래에 내가 책을 한 권 쓰려고 도서관에 가서 월남에 관한 책을 한 20여 권 빌려 봤다고. 기억에 남는

게 캐나다 출신 베트남전쟁 종군기자가 쓴 책이 하나 있어. 거기에 한국군들이 베트남 민간인들 죽인 것,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 사령관한테 막 뭐라고 했다는 내용, 한국군이 변명했다는 말..., 그런 사실들이 다 쓰여 있었어. 그걸 보고 자세히 알게 된 것이지.

**책을 쓰는 과정이 전쟁을 폭넓게,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네요. 왜 전쟁 경험을 글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지, 월남에서 생활할 때는 그냥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고 자세하게 깊이 알게 된 것은 책을 쓰면서부터지. 월남에 갔다가 한국에 와서도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 전쟁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가, 이런 것을 너무나 알리고 싶었지. 내 실제 경험 속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써야지, 써야지 했지만 제대로 시작은 못했어. 국가 환경이 뭐 사실을 사실대로 쓸 수가 없는 시대였잖아? 아무튼, 마음속으로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다가, 한 출판사 사장을 만나 군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거든. 그때가 한창 군인들 자살 사건이 막 터져 나올 때였다고. 그래서 “사실 내가 월남에 갔다 왔는데, 민주화가 많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군대는 똑같은 모양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지. 그러니까 왜 자기한테 월남 얘기를 이제야 하나면서 무릎을 '탁' 치고는 그걸로 책을 한 권 써보라는 거야.

“

전쟁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가,  
이런 것을 너무나 알리고 싶었지.  
내 실제 경험 속에 있는 것들이니까.

”

책을 주셔서 저도 읽어보았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용이 월남전 참전에 대한 자전적 경험이던데, 어디에 따로 기록해 두신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다 기억을 해서 쓰신 거예요?

집필이 한 1년 걸렸지? 그때는 내가 미국에 있을 때라서 주로 워싱턴에서 작업을 많이 했지.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도 찾아보고. 월남에서 뭐 기록을 특별히 해온 것은 없는데, 또 막상 쓰려고 기억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다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나라 군대가 참 엉망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전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 공산주의자를 물리쳤다, 뭐 여러 이유를 대지만 결국엔 다 탐욕 때문이잖아. 결국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계속 생기는 거라고.

책을 쓰시고 난 다음에 베트남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것이니 이미 전쟁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이후겠네요. 그러면 한국군에 의한 전쟁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과 만났을 때 감회가 더욱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뭐..., 충격이었지. 기분이 썩 좋지도 않았고. 아무래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솔직하게 불편하기도 했지, 피하고 싶기도 했고. 그래도 어쨌든 행사 취지가 좋으니까, 그리고 그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본 거지.

그 이후에 몇몇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서 베트남전쟁의 경험을 여러 번 증언하기도 하셨어요. 아리랑TV, 베트남 국영방송 VTV와도 인터뷰하셨고요. 그때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기억나세요?

오래되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 데... 뭐 베트남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같은 것은 없었냐는 걸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 베트남 방송국이라 그런지 몰라도 특히나 민간인 피해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 나중에 가서는 그것만 물어보고 추궁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 뭐, 당신도 한국 참전군인이니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뭐라도 얘기해 봐라. 이런 태도지. 그런데 내가 월남에 갔을 때는 민간인 피해가 있지도 않았다고. 한국군 파월 초기에나 몇몇 사건이 좀 있었지, 나처럼 후반부에 간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지. 나는 쥐지 않은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실이다, 거짓이다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한국군이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을 벌였다면 그건 우리가 무조건 사과를 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과 같은 시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당시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날 이런 얘기도 했어. 우리 한국도 6.25전쟁 나기 전에도 그랬고, 전쟁 끝나고도 한참을 그랬지만, 같은 민족끼리도 민간인을 엄청 많이 죽였다.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다. 지금 당신이 민간인 옷을 입고 전쟁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태도로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렇게 따지면 월맹군도 베트남전쟁이라면서 민간인 많이 죽였지 않았냐. 그리고 또 옆 나라 캄보디아, 라오스도 쳐들어가서 십몇 년을 지배했고. 한국군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한국군만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게 답답하다는 취지로 말한 거지.

**자꾸 민간인 학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 언짢게 느끼셨던 이유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정확히 어떤 지점인 거예요?**

## 왜 기분이 나쁘셨던 거예요?

결국엔 자꾸 나를 통해서, 그 민간인에게 피해를 가했다고 베트남 사람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잖아. 내가 현장에서 본 거면 당연히 말을 하겠지. 그런데 나는 그런 일을 겪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확실히 말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 나라도 빨리 끝내도록 해야 한단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 어떤 일도 합리적으로 되는 게 없다고. 세계 어떤 전쟁도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데.

## 2018년 시민평화법정<sup>2)</sup>에도 참석하셨죠? 참전군인의 관점에서 경험한 그 행사의 기억은 어떤가요?

기억에 남는 게, 거기에 가니까 그 참전군인들이 또 몰려왔더라고. 그 행사 휘방 놓겠다고 밖에서 큰소리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가서 말했거든?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 말해야지. 뭐 알지도 못하면서 휘방만 놓으려고 하면 돼?”라고. 이 행사는 참전군인들한테 민간인 학살 오명을 뒤집어씌우려는 자리가 아니라고,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국가의 책임을 밝히려는 거라고 설명했다고. 내가 설득해서 그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막상 데려가서 앉히니까 가만히 잘 듣다가 “자기가 잘 모르고 과격하게만 한 것 같다”라면서 미안해하면서 갔다고.

---

2) 정식 명칭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다. 2018년 4월에 개최되었으며 베트남 피해자가 직접 원고로 참석하였고, 53개 시민단체와 1,000 명이 넘는 시민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평화교육 활동을 하셨어요. 한국-베트남-미국 베트남전 참전군인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행사에도 발표자로 참여하셨고요. 새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스로 이런 활동을 어떻게 보세요? 항상 마다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같이 해 주시잖아요.

젊은 학생들에게 전쟁이라는 게 무엇인지, 전쟁의 실상을 들려주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청년들이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어.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평화활동가가 될 수도 있잖아? 이전에는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는 기회 자체가 잘 없으니까, 말할 일이 별로 없었지. 나 스스로 '평화운동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글썸...(하하).

“

청년들이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어.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평화활동가가 될 수도 있잖아?

”

지금까지 해 오신 크고 작은 활동을 모두 평화활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나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평화에 대한 인식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평화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으로 직접 만든 엽서를 나눠 주면서 평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은 활동도 했었고, 관련된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할 때도 있었지.

실제로 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런 모습을 더 자주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은 아프간전쟁이나 이라크전쟁 반대 집회에도 자주 모습을 보이고 전쟁 반대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반면 한국에서는 참전군인의 활동이 참전단체 내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가 30여 개나 되는데 그 중 평화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다고 들었어. 한국 참전군인이 그렇게 하면 ‘빨갱이’라고, ‘종북’이라고 손가락질당하겠지. 한국에도 ‘평화재향군인회’라고 제대군인들이 평화활동 하겠다고 만든 단체가 있거든? 그런데 그 단체 대표한테 협박 전화, 편지 이런 것들이 매일 온다는 거 아니야. 실제로 신변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하고. 평화활동이라고 해도 이런 것을 평화라고 봐주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참전군인 모임에 나가지 않으니까 잘 모르긴 몰라도, 지금

있는 참전단체들은 뭐 정부 보조금이 1년에 몇 십억 원씩 나오니까, 그거 차지하려고 서로 난리라고. 횡령하고, 고소하고, 매장하고, 공격하고, 뭐 말도 못 해. 웃기게도 그게 다 돈 때문이라니까? 돈 그게 뭐라고…. 돈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다 관변단체지 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사고의 다양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었잖아. 전쟁을 그렇게 치열하게 몇 번을 했으니까. 적군 아니면 아군,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다 공격하고 없애버려야 하고. 어렵게 잡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으니까, 자신한테 위협이 되는 주장들을 다 물어버리고 싶은 것도 있겠지.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사고가 자유롭지 못하거든. 주입식, 사상교육, 군사주의, 반공교육 이런 것들에 하도 시달려서 머리가 그냥 거기에 굳었어. 그 시대 사람이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다 똑같아, 그냥 박정희가 최고고 이승만이 우상이야. 자기의 비겁함, 두려움, 가치관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게 피곤하고 무서우니까 다 덮어버리는 거야, 그냥.

참전을 명예로 보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도 결국엔 인정욕구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참전자분들에 대한 존중이나 이해가 거의 없잖아요, 금전적 보상금만 조금 있다뿐이지.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나이가 들

었다는 이유로 이런 부분에 대해 인정은커녕 이해조차 받기 어렵죠. 낯선 것이 여전히 많은데 세상은 너무나 빨리 바뀌고. 결국 본인들이 배우고 아는 것 안에서만 활동하다 보니 사회 구조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다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런 경험이 없지. 그 시대 사람들이라는 게 자랑할 만한 것이 나이밖에 안 남았잖아. 그리고 월남 갔다 왔다는 게 한때는 정말로 자랑거리였다고. 당시에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신랑감으로 괜찮은 대우를 받던 때라니까? (하하) 옛날에는 학교를 안 다녀도,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라고 대우를 해줬단 말이야. 동네에서 마을 어른으로 존경받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근본적으로 노인이 주목도 못 받는 시대가 되었지. 그런데 그건 본인들이 자초한 것도 있다고 봐. 스스로도 품격이 없잖아. 함부로 말하고 행동거지도 경망스럽고.

“

가난한 나라 백성이니까 돈 몇 푼 준다가에,

밥은 안 굶는다가에 간 거지.

병사 개개인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인데?

보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지.

”

어쨌든 베트남전쟁 문제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편협한 측면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참전군인이 가지는 처지와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전무하고요. 전쟁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참전군인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어떻게 보면 역사 바로 세우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평화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참전하게 된 개인들의 사정은 저마다 다 다르겠지.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서 발생한 문제를 한 개인보고 어떻게 하라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잖아? 일본제국 병사들이 한국에서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걸 일일이 그 병사들을 찾아가서 따지고 들 수는 없잖아.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이야기해야지. 독일처럼 국가가 사죄하고 배상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냐?

베트남전쟁도 그렇다고. 그걸 개인 병사들에게 물어봐야,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나.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 가난한 나라 백성이니깐 돈 몇 푼 준다기에, 밥은 안 굶는다기에 간 거지. 병사 개개인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인데? 보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지.

그리고 또 어느 한 시민 단체가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풀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시민 단체의 역할과 시도는 중요하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봐.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건 어찌 되었든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사람들도 그걸 넘어서

는 걸 요구해서도 안 되고, 단체들도 무리해서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봐. 운동으로서의 한계를 서로 인정하고 활동해야지. 안 그러면 될 일도 안 돼.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적어도 베트남전쟁이라는 의제 안에서, 참전군인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인식을 넘어서기 힘든 것 같아요. 평화운동이라는 영역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근데 뭐, 전쟁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구분되나? 이렇게 말하면 ‘가해자성을 희석시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세상을 아주 일부분만, 자기가 보고 싶은 만큼만 보면 안 되는 거야. 전체를 봐야지, 전체를. 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결과가 발생했고, 결국에 그 모든 것은 전쟁이라는 틀 안에서 벌어진 것들 아니야? 그러면 그 전쟁이라는 끔찍한 것에 대해 성찰, 반성해야지 그 안을 파고들어서 일일이 나누면서 누구는 이러니까 피해자, 누구는 이러니까 가해자, 그런 자격은 누가 부여하고 인정하는 것인데? 그건 그냥 답도 없는 논쟁만 하는 거야, 끝이 나지도 않아. 왜? 전쟁터에서 그런 것을 구별 짓는 게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좁게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잖아. 뭐 하나만 꼭 집어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급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해결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앞서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기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걸 ‘그러니까 참전군인들이 더 앞장서서 평화에 대해 말해야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이해했어요. 현재의 참전단체 활동과는 별개로, 선생님을 포함한 많은 참전군인이 평화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내가 지금껏 만나본 참전군인 중에 ‘평화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그저 베트남전쟁을 자랑스럽게, 영광으로만 생각하지. 전쟁의 비참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평화운동을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지. 근데 나는 평화운동을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잖아?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을 얹혀놓고, 또는 개별로 만나서 ‘우리 참전군인들이 평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해봤지. 그런 친구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처음에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데, 차분하게 내가 조목조목 설명해 주면 눈치를 보면서 들어듣는다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들어 주고 애기도 나눠 주고 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가야지. 그것도 다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

그런데 뭐,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어. 그리고 또 평화나 미래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내 생각이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이 안 된다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너무 극과 극이니까. 모르지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오기는 할지.

### **스스로 평화활동가라고 생각하세요?**

뭐... 평화를 위해 어떤 것을 하겠냐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 내가 지금 이런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는 못하잖아. 나의 모든 정열을 100% 다 쏟아 부어서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평화활동을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언젠가 내가 구상한 대로 몽골에 평화 마을을 만들게 된다면, 그때에는 비로소 나 스스로 평화활동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 **평화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나는 평화의 핵심이 이해라고 생각해.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은 다 서로 국가끼리, 민족끼리, 종교끼리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거야. 물론 쉽지는 않겠지. 그래도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봐. 그게 평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지.

# 할아버지가 전쟁이야기 해줄게

: 양정석

개인으로서 평화활동을 조금씩 일궈 가는 참전군인이 있다. 참전군인이 들려주는 전쟁이야기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역사의 당사자로서 참전군인의 이야기가 가지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참전군인 양정석의 이야기가 그렇다. 그는 전쟁을 다녀왔고, 전쟁을 잊었고, 그리고 전쟁을 다시 기억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평화활동으로 이어가고 있다.

양정석은 백마부대 소속으로 1969년과 1971년, 두 번이나 월남에 다녀왔다. 1969년 첫 번째 월남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리고 다시 지원한 두 번째 월남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전쟁의 쓴맛을 경험하고 돌아와 기록을 남겼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그 기록을

다락에 던져둔 채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살면서 그 흔한 영웅담으로도 베트남전쟁을 추억하지 않았다. 한국과 베트남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쏟아지는 기사가 잊었던 전쟁의 기억을 불러왔다.

참전군인 양정석은 행동파이다. 참전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청소년과 시민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긴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것은 이제 생각해 보니 그 역할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평화를 위한 활동은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는다. 2018년부터 평화단체와 인연을 맺고 전쟁의 경험을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구술, 강연, 글쓰기, 평화기행, 유튜브에도 출연해 평화를 이야기한다.

**언제부터 베트남전쟁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신 거예요?**

언제인가 시내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면서 신문을 보는데, 이태원에 퀴논길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기사를 읽어 보니까 베트남에 ‘한국군 증오비’라는 게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있다니? 내가 너무 놀라서 찾아보니까 한베평화재단이라는 단체가 그런 걸 알리는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나한테 프린트한 자료를 이만큼 우편으로 보내줬어. 지금도 우리 집 어딘가에 있는데, 그걸 보고 한국군이 관련된 민간인 피해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어. 그때부터 이런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지.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셨던 건가요?**

그렇지. 전혀 몰랐다니까. 내가 월남을 갔다 온 사람인데도 그 기사를 접하기 전까지는 뭐, 그런 것에 대해 알지도 못했어. 월남 얘기 자체를 누구한테 별로 하지도 않고 아예 잊고 살았다고. 나도 처음 월남에 갔다 온 직후 오랫동안 그 베트남 외판집 아이들이 우는 소리, 그게 밤마다 생각나고 꿈에 나와서 잠을 못 잤거든. 그런데 그 후로 사업이 부도도 맞고 뭐 이런 저런 일 하고 인생을 굴곡지게 살다 보니 그런 것도 다 잊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온 거지. 그러다 기사를 보니까 딱 충격을 받고 그제야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야, 바로 그 월남전에 대해서.

그런 기사를 읽었다고 해도 또 실제 참전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예전과 같이 일상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평화활동으로 인연이 깊어진 것은 우연의 일치였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 이런 단체가 이미 있는데 내가 굳이 뭘 더 할 필요가 있겠어? 그냥 마음이나 좀 보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래도 그렇게 마음먹었어도 후원 회원이 되기까지는 또 몇 년이 걸린 거지. 거의 2년? 문턱을 넘는 게 얼마나 힘들었다고. 왜냐하면, 그때 한 참전단체에 가입은 했지만 참여하지 않아서 거기에서도 한창 나보고 “함께 하자” 하고 연락하던 때거든. 내가 베트남 민간 피해 이런 문제를 자꾸 찾아보고 다니니까 다들 말렸어. 왜 별 볼일도 없을 텐데 그런 데를 가려고 하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거기 간다고 뭘 할 수 있겠냐면서.

하지만 그게 참전단체나 평화활동이나, 둘 중의 하나를 골라야 하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둘 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안 되지. 거기에 가면 여기는 오면 안 되는 거지. 서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물론 참전단체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는 것도 좋지, 좋은데…. 그래도 내 마음이 쓰이는 곳은 여기더라고.

참전단체에서 “민간인 피해 주장은 참전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라는 주장을 강력히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왜냐?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라는 것은 항상 있었거든. 그런 일 안 생기는 전쟁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나도, 내가 직접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위험할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쟁터에서 전과를 올리기 위해 지휘관들이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물론 명령 내리는 일선 지휘관들의 인성이 제일 문제지. 인제 와서 다 드러내 봤자 무슨 소용이겠냐 싶고, 또 세상도 시끄럽기만 하니까 말 안 하고 싶고 인정도 안 하고 싶은 거지.

**청소년,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참전 경험과 전쟁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나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좋다가보다도, ‘내 남은 생애에는 이것을 해야겠다’ 이거야.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만날 지각한다고 혼나고 화장실 청소나 하고, 주눅이 들어 활기가 없었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은 글도 쓰고 책도 내고 어디 나가서 얘기도 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학생들 보면 누구든 절대 하찮게 안 봐. 그중에서 대통령이나 장군도 나올 수 있잖아. 나중에 어른이 되어 어디에 뭐 쳐들어가네, 마네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역할

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아, 그때 그 노인 양반이. 그 참전군인이…” 하면서 딱 내가 한 얘기가 떠오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까? 『전쟁론』이라는 책을 쓴 독일 사람이 있어, 클라우제비츠라고. 그 사람이 자기 책에 그런 얘기를 했던 말이야. “전쟁은 위대한 서사시와 영웅을 낳는다고? 개뿔 같은 소리 마라. 전쟁은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피눈물만 남긴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 우리가 하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속으로 항상 그런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은 미미해 보여도 아마 나중에는 큰 열매를 맺고 큰 거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 두 번, 세 번 할 것을 한 번이라도 덜 하고. 민간인 학살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옛날이랑 다르게 요즘은 사람들이 책도 많이 보고 하니까 이렇게 만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

“

전쟁은 위대한 서사시와 영웅을 낳는다고?

개뿔 같은 소리 마라.

전쟁은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피눈물만 남긴다.

”

지금 하는 평화활동을 말하자면 일종의 ‘소명’처럼 생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지. 안 그랬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못하지. 그런 생각도 한다고. 내가 월남에 한 번만 갔다 왔으면 몰라도, 두 번을 갔다 온 것이 이렇게 살게 될 운명이었는가 보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모인 사람들 숫자도 적고, 행사 규모도 작고 하니 조금 그렇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모임 같은 것도 잘 없잖아. 그래도 어쨌든 내가 전쟁을 겪어보고 느낀 것을 여러분한테 가감 없이 이야기 한다는 거를 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가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 그때마다 지하철에서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 ‘아, 내가 월남에 한 번만 갔다 왔으면 이런 말도 못 했을 텐데. 그때(첫 번째 파월)는 비교적 편하게 갔다 왔으니까 전쟁을 미화하고 그게 뭐 별거냐 큰소리나 쳤을 텐데. 미쳤다고 거길 두 번이나 가서 겨우 죽다 살아오니 이런 일도 생기는 구나’ 싶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하늘이 이런 일 하라고 두 번 갔다 오게 만든 건가 싶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힘이 없고 아프고 하니까 밖에 다니지도 못했는데. 그냥 작은 일이라도 조금씩 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도 이 작은 일 하는 데도 주위에선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고.

이런 활동을 다른 참전군인들에게 알리고, 같이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을 만드는 것까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더 많은 참전군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직접 평화를 말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생각이야 있지만, 나이 들어 건강도 그렇고, 여러 주변 환경이 녹록하지 않아, 어렵다고. 특히 양극단 체제가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정치 질서 아래에서 평생 국가폭력에 침묵하고 순응해 온 우리 세대들에게 ‘평화’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엔 너무 두려운 그 무엇인지도 모르지. 가난해 못 먹고 못 배웠지만, 자식들은 버젓이 길러 사회에 내놓은 이들도 그래. 지금은 연륜이 쌓이고 많은 정보를 접해서 사회의식에 눈을 떠 평화의 소중함을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재단에 후원하며 힘을 보태는 참전군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연구를 위해 만나 본 참전군인들은 항상 자신이 별종이거나 돌연변이라서 평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 답하시더라고요. “다른 참전군인은 그렇지 않아.”, “말이 안 통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이런 분들이 찾아보면 곳곳에 계실 것 같아요. 참전군인의 평화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보여주면, 쉽지 않겠지만 같이 마음을 내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참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어떤 사람이 어디서 이

런 일도 하는구나, 이런 게 알려져서 그것이 다른 참전군인들한테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바라지. 꼭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지금 참전 관련 단체가 여럿 있잖아요.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상이군인회... 정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법 단체이기도 한데, 이들 단체도 1990년대 민주화 이후에 목소리를 내면서 참전에 대한 명예, 피해 보상 요구를 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단체 내에서 평화활동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자리 잡지 못하거나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도 결국 이전과 같은 답일까요?

그렇지. 나도 이곳에 오기 전에 한 참전단체에 가입해 두어 차례 월례 모임에 참석해 본 일이 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반공, 맹목적 애국, 그리고 상명하복식 조직문화 등이 나에게서 많이 불편하더라고.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말이지. 평화활동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스스럼없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하는데 글썄, 그런 경직된 조직에선 어렵다고 봐. 선거철만 되면 여기저기 요란한 무슨 향우회, 동문회, 종친회 같은 뭐 그런 대가리만 있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 단체가 공익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이권이나 챙기려는 이익 집단으로만 비치니 많은 참전군인은 물론이고 사회로부터 이들의 정당한 주장까지도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더욱이 공경이나 명예 등은 우격다짐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

“

피해 진상규명,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참전군인들을 등지고, 척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으려는 열린 마음이 먼저지.

”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문제는 베트남전쟁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참전군인이 겪은 다양한 문제, 고엽제나 트라우마같이 참전으로 말미암아 생긴 삶의 변화로 확장해서 바라보는 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전군인 대부분이 고령이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참전군인 트라우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했을 걸? 이런 부분을 여기저기 알리고 신문에도 나오게 하고 대대적으로 인식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참전군인들한테는 이런 운동과 주장이 ‘공감’을 주니까. 자기의 처지에도 공감을 해주는 것 같잖아.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도 반대의 관점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고. 참전군인들은 정말로 억울한 부분이 많아.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은 정말, 정말 외로워.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죽을 고비 넘겨 가며 갔다 왔는데 지금은 뭐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자기만 병들고 힘드니까.

예우가 뭔데, 뭐 수당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피해 진상규명, 그런 것을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참전군인들을 등지고, 척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으려는 따스하게 열린 마음이 먼저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장에선 여러 사건이 다양한 형태로 반복적, 때론 중첩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런데 그중 하나의 사건이 전쟁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야.

**시민사회 영역이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전군인들을 이야기의 장으로 또 평화활동의 영역으로 이끄는 데에 가장 중요하게 극복해야 할 지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화라는 것은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남에게 맞추는 거야. 참전군인들한테 평화운동 별것 아니다, 자기 아들딸, 손주들한테 “나 월남 갔다 왔는데 전쟁하면 큰일 난다. 전쟁 나면 다 죽고 끔찍하니까 반대해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게 평화운동이다. 내가 왜 힘들었는지를 이해시키는 활동이라고 해서 여기에 발을 들여놓게끔 해야지.

**지금 하고 계신 활동에 대해 스스로 ‘평화활동가’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당연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런 것 뭐하러 해. 나는 전

쟁을 겪어봤으니까. 많은 참전군인이 전쟁에서의 무용담을 이야기 하지만, 나는 전투에 나가는 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를 말한다고. 월남에서 작전 나갈 때 ‘베트콩’, 특히 북베트남 정규군 이랑 전투한다고 하면 다들 오금이 저려. 이런 얘기 하면 누구는 “아 뭐 저런 겁쟁이 같은 놈이 헛소리한다!”라고 하는데, 개뿔 같은 소리여. 나도 크고 작은 전투 많이 해봤고, 실제로 다쳐서 팔다리가 날아가고, 자칫하면 내가 맞았을 충알을 바로 옆 사람이 맞고 죽는 것을 자주 봤는데 왜 전쟁이 안 두려워? 그것도 먼 타국에서?

“

나는 전투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지 안다고.  
이런 얘기 하면 누구는 겁쟁이가 헛소리 한다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는 소리여, 왜 전쟁이 안 두려워?  
그것도 먼 타국에서?

”

그러니까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전쟁의 공포와 전쟁의 고통을 말하는 것 자체가 평화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일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르잖아. 이런 말도 있는데, “전쟁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만이 달콤하다”라고. 막 게임이니, 영화니, 이런 데에서 보는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고. 총알이 나만 빗겨가나? 자기 죽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냐고. 그리고 전쟁 나면 그 피해는 민간인들한테 더 많이 간다니까. 참전군인은 직접 당사자로서 전쟁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활동이 반전 평화운동이라는 것이지. 내가 대단한 사람은 못되어서 큰 힘은 안 되겠지만 뭐든 하고 싶다는 거지.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과연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일까?’, ‘평화 속에서 어떤 것을 평화운동, 평화활동이라고 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단순히 자원봉사를 평화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평화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평화란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어느 민족이고, 어느 나라고, 어느 집단이고 간에 자기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간섭받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신념에 따라 억압받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이웃과 상생하며 사는 것이 평화겠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평화운동은 전쟁의 참상을 알려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 전쟁이 일어난 뒤에야 평화를 지킬 것이라며 열심히 싸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애초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단니까? 전쟁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

야 하거든. 나는 평화운동이라는 건 그런 것이라고 봐. 싸움이,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특히나 젊은이들에게 알려서 이들이 나중에 중요한 자리에 가건, 결정적인 판단을 하건, 아니면 여론에 보탬 일이 생기건, ‘전쟁하면 안 된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이걸 배워야 아는 거라니까?

말씀을 들으니 이런 고민이 들어요. 아마 현재 나이로 60대까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잖아요. 70대부터가 6.25전쟁이나 베트남전쟁을 경험한 세대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더 많은 셈인데. 그렇게 따지면 전쟁을 경험한 참전군인이야말로 사실 평화운동에서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참전군인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해.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긴 한데... 상당히 제한적이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재미도 없고, 어찌다 한 번씩 그것도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거라도 안 하면 어찌겠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난 세상을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 두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하하). 왜냐하면 이걸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제로 보이겠죠. 특히 참전군인의 문제나 정체성을 관심과 애정으로 들여다보는 이들은 더더욱 적은 것 같고요.

그래도 베트남전쟁에서 그 반전운동의 압력이라는 게 대단했잖아. 나는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단체들이 하는 평화운동이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런데 그래도 참...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 보면, 정말 처음에는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발을 들여놔도 나중에는 변질되거나 그냥 흐지부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내 경험이 그랬어. 사람들이 왜 그럴까 몰라, 다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난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의미도 있고 가능성도 있으니까 정말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 주위에서는 나보고 다 그런다니까? 시민단체랑 뭘 한다고 하면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만 스스로 평화활동가라고 생각하시고, 평화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건 이용당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활동에서 자신의 주체성과 판단을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 의미가 나한테는 뭐라고 해야 하나... 나이 먹은 것으로 봐서는 참 괜찮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나는 아무리 봐도 피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내가 뭐라고, 건방지게... 나이 먹고 죽기 전에 이런 소소한 활동

이라도 기회를 얻고 하는 것이 내가 죽어서도 뭔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걸 남기려는 거라니까. 정말 생물학적으로만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늙었으니까 우두커니 공원에 가서 앉아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나이를 먹었으니까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은 거지. 지금 친구들도 나를 부러워해.

### **언젠가 도전해보고 싶은 평화운동의 과제가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은 활동이지. 전쟁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웅이나 높은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리고 개인적인 민간인들의 이야기도. 나는 내가 반전 평화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때, 월남에 갈 때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간 것이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읽고 보고 하면서 알게 된 것이 많지. 그리고 내가 같은 전우로서 많은 참전군인과 만날 기회가 된다면,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다가가 그들의 가슴속 얘기를 들어주고 그 얘기를 우리 사회에 전하고 싶어. 서로 손을 맞잡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의 시작이 아니겠어? 그런데 뭐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그럴 일이 생기는 하겠어?

###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가 있으시죠?**

그렇지 아무래도. 뭐라도 해야지.

## 항상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 류진성

여기,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참전군인이 있다. 그는 한국 사회가 베트남전쟁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베트남전 참전과 가해의 경험을 공론장에서 밝혔다.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가해’의 경험을 증언하는 것은 큰 용기와 결심이 필요하다. 동료 참전군인들의 따가운 시선, 부족한 사회적 연대와 지지 아래 그의 선택은 스스로 큰 희생을 감내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류진성은 상이군인이다. 1967년 10월 청룡부대 소속으로 베트남에 갔고, 작전 중 다리를 크게 다쳤다. 제대 후 청년 시절부터 상이군 경회에서 활동했고, 얼마 전 상이군경회 임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그의 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참전군인

류진성과 인연은 2017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상이군경회 이름으로 피켓시위를 하던 중이었고, 우리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하며 매일 1시간씩 1인 시위를 하던 때였다.

군복 입은 참전군인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일은 보통 잘 없는 일이었고, 또 매우 긴장되는 일이었다. 우리에게 다가온 참전군인은 예상외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사과해야지.,” “우리가 잘못된 거야.”라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 들려준 참전의 경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풍나·풍넛마을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마침 우리는 베트남전쟁 시기 이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시민평화법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를 만난 건 정말 운명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 전쟁경험에 대한 성찰, 전쟁의 고통과 비극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그의 양심선언을 평화 실천의 사례로 소개한다.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상이군경회 활동을 하셨어요?**

월남에서 1969년도에 다쳐서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상이군경회 활동은 1970년부터 했지. 선택할 수 있는 단체는 많았어, 나한테 그 자격이 다 해당되니까. 무공수훈자회도 갈 수 있었고, 고엽제전우회도 갈 수 있었고, 월남참전전우회도 갈 수 있었지. 그래도 상이군경회를 택한 건 이런 데, 저런 데 다 있어도, 결국 여기가 ‘모체(母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1950년도에 6·25전쟁 터지고 희생자가 쏟아져 나오면서부터 이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름도 상이용사회, 상이군인회, 또 뭐 상이군경회 등등. 아무튼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래도 군인 단체 중에 역사가 제일 오래되었지, 아마? 처음 단체에 가입하면서 내가 전라북도 지부에 지도과장으로 영입되었어. 그때 내 나이가 스물다섯이었다고.

**정말 젊을 때였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신 거네요.**

지도과장 중에 내가 나이가 제일 어렸지. 그때 단체에서 주로 힘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 6.25 선배 세대거든. 당시에 이미 체제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어, 아주 말도 못 할 정도라고. 그 선배들이 만든 조직이기도 하고, 수적으로만 봐도 월남전 부상자는 6.25 부상자에 비해서 뭐 십 분의 일도 안 되었을 거야. 그래서 ‘파월 세대가 단체를 개혁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쟁을 시작한 거지.

상이군경회 내에서 6.25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 사이에 15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도 두 그룹 사이의 권력 관계와 경쟁이 거셌군요.

내가 월남 갔다 와서 막 활동을 시작했을 때가 20대였잖아? 그때 이미 6.25 세대는 40대 전후였다고. 이미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지 않겠냐며 선배들 다 물러가라고 했지.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6.25 선배들이 그랬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놓고 이래저래 계속 핑계를 대면서 집권 수명을 길게 가져가더니 70대가 되도록 잡고 놔주지 않는 거야. 그 후로도 한 30년을 더 한 거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세대교체가 되었는데, 이걸 선배들이 양보하고 물려주고 그래서 가능했던 게 아니야. 선거 제도가 도입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명분이라고 봐. 6.25 선배 세대는 직접 우리 조국을 지키려고 싸우다 다쳤다는 긍지가 있지. 그런데 우리 월남 참전자들은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전쟁에 뿔 하러 가서 다친 거냐는 시선이 있잖아.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니까? 월남을 무슨 돈 벌러 갔다 온 거로만 생각한다고. 근데 또 실제로 월남 가서 돈 벌어 왔다고 자랑하는 놈들도 있긴 있어. 근데 그렇게 팔자 좋게 돈 벌어 온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라고. 우리 청룡은 그런 경우는 꿈에도 없고, 그냥 정글 속에서 하루하루가 그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는데... 우리는 참 억울한 게 많지.

“

6.25 선배 세대는 우리 조국을 지키다 다쳤다는 긍지가 있지.

그런데 우리 월남 참전자들은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전쟁에 뿔 하러 가서 다친 거냐는 시선이 있잖아.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니까?

”

물론 후방에 계셨던 분들도 부상의 위험이 있고 어려우셨겠지만, 상이군인분들은 그보다 훨씬 치열한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전상의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특히 월남전 같은 경우는 우리 때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정도가 보통이고, 고등학교 졸업한 경우도 많지 않고, 대학교는 뭐 정말 아주 극소수였어. 게다가 나는 해병대 청룡부대니까, 육군하고는 사정이 좀 다르거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전방으로 배치됐다고. 무슨 많이 배웠고, 있는 집 자식이고 해서 안전한 지대로 가고 그런 것은 없었어. 작전 중이나 군 복무 중에 다친 사람도 자격에는 해당하니까 상이군경회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뭐 이렇다 내세울 명분이 없지. 참전자들은 전쟁터에서 다친 거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전쟁 치른 세대여야 명함이라도 내밀고 어깨 으쓱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6.25랑 월남밖에 없잖아. 결국은 이 두 그룹의 싸움이지.

**상이군경희 내에서 출마도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북지부 지도과장으로 시작하셔서 계속 직책을 맡다가 임원으로 출마하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2001년에 첫 번째로 상이군경희 회장 선거에 출마했지. 그게 파월 출신이 최초로 회장에 출마한 거라고, 6.25 선배들한테 도전한 거지. 후보가 한 7~8명이었는데 그때 내가 2등을 했다고. 1등은 당연히 6.25 선배였지, 표 차이도 크게 났고. 어쩔 수 없어, 그게 다 짜인 각본이 있는 거거든.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출마를 하기는 했지만, 회장으로 나가지는 못했어. 다른 파월 선배들이 회장으로 나가겠다고 하고, 견제도 너무 심하니까 부회장으로 한두 번 더 도전했지. 그래도 매번 잘 안 되었어. 우리 단체는 어떤 객관적이고 이상적인 판단들을 앎더라고. 그냥 몰아서 가, 몰아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지 알아도, 뒤로 작업을 다 해서 이 사람 찍어줘야 한다고 하면 우르르 가버리고. 이번 선거도 마지막이라고 마음먹고 나간 것은 아니었어. 그래도 부회장 정도는 될거라고 생각했지, 떨어질 줄은 몰랐다고. 아직도 짜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 이제는 나도 포기했어. 이 조직은 답이 없어. 틀렸다고.

**상이군경희에서 무엇을 실현하고 싶어서 계속 출마하셨던 거예요?**

상이군경희는 우리 사회에서 상이군인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지. 정말로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 상이군인이 국민에게 빛을 많이 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내가 무슨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식적으로 대단히 큰 공로를 세우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재수가 없어서 다친 거라고. 그런데 어찌되었든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잖아. 그 보상은 무엇으로 해주냐? 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라고. 그럼 우리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그 보답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래서 난 우리 단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구상이 있었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 계속 문을 두드리고 도전한 거지. 내 개인의 이득이나 명예를 위해서 출마하는 거였다면 진즉 다른 길 갔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잘살까만 궁리했겠지. 나는 돈 버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오로지 여기에만 인생을 몰두했다고. 국가유공자라는 위상에 걸맞은 그런 명예를 제대로 한번 정립해 봐야겠다는 게 내 소신이고 철학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조직에서 받아 주질 않으니깐, 이제 더 내가 노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마음 접었지.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국민에게 진 빚’이라는 것이 뭘까요? 어찌면 ‘국민이 진 빚’이기도 하잖아요.**

국민 눈에 참전군인이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옛날 자유당 때에 나도 겪었다고, 물론 그때는 어려서 구경만 했지만. 마이크 올려두면 팍 쳐버리고, 유선 줄 잘라버리고. 그때는 군사정권이 실제로 권력이 있던 시절이니깐, 먹고 살기 위해 지시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었다고 봐요. 박정희정권

이나 전두환 정권이 꼭 욱먹게 만드는 일에 상이군인을 이용했다고. 나도 수없이 나갔어. 그 데모하는 데에. 그때 회장이 꼭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서, 내가 어떤 사건에 앞장서서 엄청나게 시위하고 결국 한 사람을 구속하게 만든 적도 있다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가 실제로 참여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로서 말하는 거야. 그런 관제 데모가 뭐, 노태우 정부 시절까지는 있었다고 봐야지. 이후에는 전혀 동원을 앓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미국산 소고기 파동으로 난리 났었잖아? 그때부터 다시 나가기 시작했지. 얼마씩 나가라고 할당이 된다고.

상이군경회가 휠체어 타고 앞에 쪽 늘어서서 시위하고, 그런 모습들이 국민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 하고 썩 맞지 않는 방향이잖아. 우리도 약자로서, 정권이나 권력에서 사주가 내려오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걸 국민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참전군인들도 시대적인 아픔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싶기도 했고. 지금 태극기집회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특히나 참전군인들. 과연 그런 것이 보수냐 하는 데에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 보수가 아니야. 그냥 독재자의, 정권의 하수인인 거지. 내가 생각하는 진짜 보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우리 정체성이나 자주성을 지키는 게 보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나와 우리 조직은 이런 신념과 생각 자체가 너무나 다르니까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지.

“

가해자인 것은 변함없지.

그렇지만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니까.

군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특수 조직인데

사병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말도 안 돼.

국가가 책임지고 해명하고 해결해야지.

”

2018년 시민평화법정에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증언 하셨잖아요. 이후로도 여러 국내외 언론사들을 통해 인터뷰하셨는데, 그때마다 ‘가해’의 경험을 묻는 것이 초점이었고요. 참전군인으로서 ‘가해’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가해자인 것은 변함없지. 그렇지만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니까. 아무 것도 듣지 못하고 이해도 없이 국가에 의해 간 전쟁이고, 군대라는 상명하복의 특수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피해자... 군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특수한 조직인데, 게다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 더욱 모든 행위가 상관의 시키는 대로 따라야만 하고. 사병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말도 안 돼. 국가가 책임지고 해명하고 해결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고 방치만 하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갈등만 부추기지. 아무 죄 없는 졸병들끼리 서로 불편하니까 싸우고, 정작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뭔가를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뭐 벌써 다 끝났어, 끝났다고. 집권하면 이런 역사 문제 같은 것은 다 정리를 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니야? 광주 5.18처럼 정부가 책임지고 조사를 해서 억울함도 풀고 불필요한 것들은 싹 정리를 해야지. 왜 자꾸 갈등만 부추기냐는 말이지. 나이 먹은 사람들 불편하게.

내가 인터뷰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목적과 이유를 두고 한 거야.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도되었는지까지는 확인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잘 전달되었으리라 믿지. 내가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후대에는 더는 전쟁이 없으면 한다는 것. 특히 정세가 불안한 우리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이 더욱 많잖아. 그것이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하고 싶다고.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는 없어, 그건 불행을 자초할 뿐이지. 게다가 현대 전쟁은 얼마나 무서워? 지금 전쟁은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전쟁이야.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지옥이라고. 그런 걸 부추겨야 하겠어? 시간이 걸리고, 방법을 찾기 쉽지 않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리고 싶었어. 그런 게 진짜 평화라고 말하고 싶었고.

**베트남전쟁은 미국이 시작한 것이지만 한국도 분명히 전쟁을 통해 얻은 이익과 영향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의 한계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지. 월남전에 한국 군인을 보내겠다는 판단, 결단을 내린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결정권자들이 제대로 설명을 해줬어야지. 월남전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그로 인한 공과(功過)는 무엇이었는가,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국가적 견해를 밝히고 판단을 해줘야지. 그런 게 없으니까 함부로 얘기하고 나서기가 서로 쉽지 않을 수밖에 없지. 사람들은 월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뭐 돈 벌러 갔다, 경제가 부흥해서 고속도로를 놓았다, 이런 것 말고 뭘 알아? 보낼 때는 좋은 말만 잔뜩 해놓고, 돌아와서의 사회적인 여론, 인식은 그냥 무관심하게 내팽개쳐둔 거지. 지금이라도 정부가 우리 참전군인들이 베트남에 참전한 동기, 그리고 그 이후, 남은 과제 이런 것들을 더 늦기 전에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주고 밝힐 필요가 있다, 이거야.

**민간인 피해에 대한 양심 고백, 증언으로 평화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평화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민간인 피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태도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모로 베트남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일본과 과거사 문제로 얽힌 부분이 많이 있잖아? 위안부 문제도 있고, 강제징용 문제도 있고,

문화재 밀반출 사건도 있고, 뭐 너무나 많지. 우리는 일본에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면서, 우리가 피해를 준 베트남의 일은 모르는 척하는 거, 그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잖아. 물론 한-일 관계와 한-베 관계는 기본이 다르긴 하지. 특히 일본은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에서 피해가 발생한 문제이고,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 참전한 데에서 발생한 피해니까.

다만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나라의 국민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요구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데, 베트남전쟁 문제는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한국의 입장도 더 명확해지고 명분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

**평화의 영역에서, 사실 베트남전쟁 문제는 민간인 피해 이외에도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지. 우리 정부는 베트남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를 내린 적이 없다니까? 베트남 참전으로 우리 국가가 무얼 얻었는지,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도 있었고, 또 전쟁이기에 어떠한 폐해들을 가지고 왔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밝혀야 명예 회복이지. 그냥 참전 수당만 준다고 명예가 회복돼?

문제는 정부가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하진 않더라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 또 여론이 해야 한다고 부추겨도 들을까 말까. 말씀하신 내용을 참전단체에서 직접 정부에 촉구하면 참 좋을 텐데. 선생님 표정을 보니..., 그건 쉽지 않은 거죠? (하하)

그것이 가능한 통찰력이나 사고력, 이런 걸 갖춘 지도자들이 단체에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불행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 누구 탓을 하겠어, 우리가 자초한 것이지.

베트남전쟁의 경험을 증언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고,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있으시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시고요. 저희는 이러한 점에서 선생님이 이미 ‘평화활동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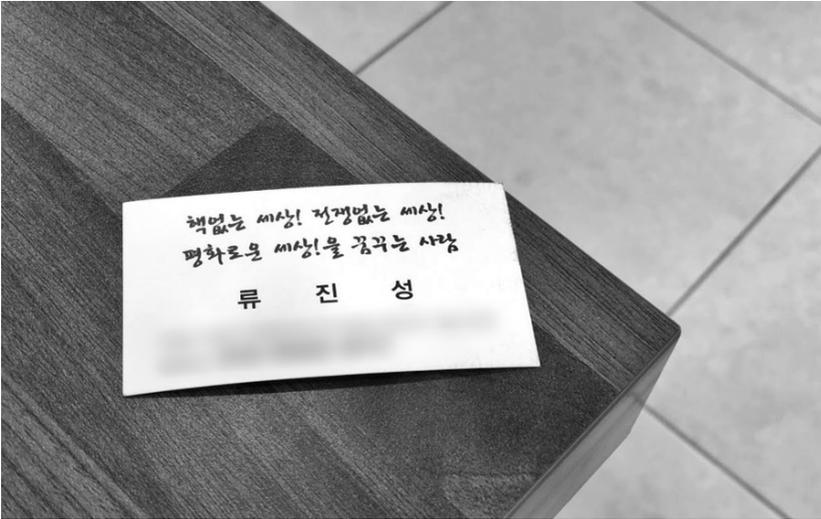
내가 감히 평화활동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공간도 모르겠고, 그저 내 주변에서 그런 질문들이나 요청이 들어오면, 내 경험과 평화에 대한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것뿐이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먼저 나서서 전파하고 요구하고 그러는 일은 없으니까.

얼마 전에 새로 명함을 만드셨다고 한 장 주셨잖아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핵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

상을 꿈꾸는 사람.” 너무 멋진 문구예요. 저도 평화활동가로 자신을 소개하지만, 명함에 제 활동관이랄까, 지향하는 가치까지 그대로 담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하) 선생님이 생각하는 평화의 가치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평화는 우리에게 ‘왜 전쟁을 했느냐’고 물음을 던지는 것이지. 전쟁의 목적은 항상 평화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전쟁은 항상 평화를 파괴하는 근원이었어. 평화를 만들기 위해 꼭 그런 방법밖에 없느냐,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데 전쟁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만 하느냐 생각을 해보라고.

평화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전쟁을 없애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지구를 파멸시킬 수 있는 핵을 없애는 것이고. 도대체 핵 같은 전쟁 무기를 왜 가지고 있어야 해?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 세계 선진국들이 이미 지구 몇 개를 날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고. 당장 사용도 못 할 걸 뭐 하러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위협하고 경쟁해? 우리는 이미 엄청난 살상 무기, 첨단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전쟁 준비는 필요치 않다고 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인물들만 사라지면 되는 건데, 왜 전체 국민이 그런 무기 때문에 죄 없이 죽어야 하는 그런 전쟁을 다시 하냐 말이야.



참전군인 류진성 명함 ©최나현

선생님은 전쟁을 반대하시는 거네요?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많잖아요.

내가 전쟁을 경험해 봤잖아, 그러니까 당당히 말할 수 있지. 과연 전쟁이 사회의 어떤 질서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나는 그것에 반대한다는 거야.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 없어. 평화는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세상이지.

“

내가 전쟁을 경험해봤으니 당연히 말할 수 있지.  
과연 전쟁이 사회 질서나 세계 평화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나는 완전히 반대야.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 없어.

”

**지금 한국 사회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강자들은, 힘이 있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평화를 느끼겠지. 그런데 결국 평화는 약자가 느껴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야. 약자가 느낄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야지. 강한 놈들은 뭐 지금 너무 살기 좋겠지, 천국이겠지. 국가가 국민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느냐의 기준은 약자들이 얼마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 단번에 100%까지 만족도를 올릴 수는 없겠지만 지도자의 판단이나 실천 의지에 따라서 30%에서, 40%로, 또 50%까지도 점차 올릴 수는 있을 거 아냐?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서 평화롭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몰라.

**앞으로 평화활동의 기회가 생긴다면 계속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참여할 용의가 있지.

## 우리가 만난 네 명의 참전군인

표명렬, 김낙영, 양정석, 류진성은 한결같이 전쟁을 반대하는 마음과 평화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내가 전쟁을 겪은 사람이니까’를 가슴속에 품고 살았다. 이 문장은 때로는 동력이었고, 죄책감이었고, 자부심이었으며, 원망과 서러움이면서, 책임이기도 했다.

월남 갈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간 것이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읽고 보고 하면서 알게 된 것이 많으니 다른 참전군인들에게 이야기할 자리가 생기면 감동하게끔 말해 봐야지 생각도 해 봤다고 했다. 전쟁이 인간을 얼마나 파멸로 몰아가는지 생생히 경험한 사람들이 반전 평화운동을 하면 얼마나 내용성 있고 영향력 있겠는가, 전투를 해봤으니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는데 그걸 내 자식들이나 후손들에게 또 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겠는가, 특히 후대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으면 한다는 것은 그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말이었다.

##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겪는 사람들

김영만은 2000년 한겨레 인터뷰에서 “죄의식이 평생을 따라다녔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그는 경상남도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운동가였다. 전쟁의 죄책감을 갚으려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활동을 했다. 평화를 위한 활동의 과정에 언제나 자신이 먼저 베트남전쟁에서 있었던 일을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부담과 무거움이 있었다.

짜빈동 전투는 파월한국군전사가 기록하는 가장 큰 전투이다. 지금도 한국 해병대는 이를 기념비적 승리이자 업적으로 거론한다. 치열한 짜빈동 한가운데서 김영만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 겨우 한국에 돌아왔다. 광대뼈가 부러져 상이 1급 판정을 받았는데, 몇 년 동안 입을 벌릴 수조차 없었다. 청룡부대원이었던

김영만은 1계급 특진에 화랑무공훈장 대상자에까지 올랐다. 1급 원호 혜택을 누릴 자격이 주어졌지만 원호심사를 거절했다. 이후에는 황급히 제대를 신청했다. 전쟁의 기억을 잊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도 전쟁을 자신의 생애에 담아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전쟁으로 돈을 받는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인 대가라고 생각했다. 전쟁은 악몽이었고 전쟁과 관련된 것과는 절대로 엮이고 싶지 않았다.

“내가 이 손으로 사람을 죽였다고요, 사람을…”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김영만은 그 시절로 돌아갈 때마다 금세 얼굴이 굳고 괴로움에 얼굴을 감싼다. 한겨레 인터뷰가 있었던 즈음인 2000년 초, 김영만은 ‘화해와 평화를 위한 베트남 진료단’과 함께 일주일간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당시는 외국인 비자 심사를 엄격히 하던 때였기에 베트남전 참전군인이 사전 허가도 없이 전쟁 피해 지역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을 찾아 전쟁의 광기 속에 무고한 민간인을 죽였다는 홀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가만히 기도를 올렸다. 이후에도 여러 번 베트남을 방문하며 자신이 전투에 참여했던 지역을 돌아보았고, 방송국 특집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전쟁의 기억을 회상하며 상처를 들여다보는 일을 이어갔다. 동료 참전군인들과 함께 미션·효순 추모 촛불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인권·평화운동과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을 하는 단체와 이라크전 반대를 계기로 연합하여 만들어진 단체의 상임대표를 맡기도 하였다.

원호대상자의 길을 포기했던 김영만은 “베트남에 사죄하고픈 참전군인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굶은일을 도맡아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의 양심선언은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참전군인의 첫 번째 증언으로 기록되었다. 앞서 인터뷰한 참전군인 류진성과 김영만은 스스로 가해의 자리에 서길 주저하지 않았다.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가해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었다.

### 참전군인 가족은 베트남전쟁을 잊지 않는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감정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쉽게 상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알아들을 수 없는 트집으로 고생해야만 했다. 우리 가정은 자식이 3명이나 되어도 단칸방 월세 신세인데 남편은 전쟁에서 피를 다 쏟아 수혈을 한 후유증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움이 일어날 때는 방바닥에 누워 마치 새우처럼 튀면서 신음하고 소리 지르는 등 고통이 말이 아니었다. 게다가 하루의 일과는 규칙과 리듬이 없고 무질서했으며 좁은 공간을 어지럽히기만 하고 정리 정돈은커녕 취침과 기상도 남들과 거꾸로 하면서 자기 식의 규칙이라고 우기며 생활소통이 전혀 안 되었다.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 없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나를 밖에 못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로 감정이 상했는지 화가 나면 아내인 나를 적대시하며 궤변으로 마구 함부로 대하는 남자, 정서가 산만하고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마음의 평화를 찾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남자가 그였다.”

(이현숙, 2019: 108)

참전군인 김영만과 결혼한 이현숙씨는 자신의 삶을 회고한 수필에서 참전군인의 가족으로서 겪은 고통을 이야기한다. ‘나는 베트남전쟁 간접적 제2의 피해자’라는 주장과 함께 국가에 대한 항의서와 국가 상대 베트남전쟁피해 보상 청구 소송문을 적어서 월남에 참전한 남편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겪었던 고통을 국가가 보상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 국가 상대 베트남전쟁피해 보상 청구 소송문

국가는 남편과 나와 우리 가족에게 보상하라. 국가는 나의 남편을 전쟁으로 폭력에 몰아넣고 희생시켰다. 국익을 위한 수단으로 국가폭력이 한 국민에게 미친 존폐위기의 후유증을 이제 국가보훈처의 관계자들은 귀를 기울여 알아듣고 받아들여야 한다. 한 청년이 국가폭력으로 전쟁에 투입되어 겪어야 했던 체험과 그 후에 결혼한 아내와 자식들과 가족들이 겪어 온 긴 세월 삶의 과정을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 전쟁후유증을 가진 청년과 살아오면서 느끼고 알게 되었던 모든 것을 뇌과학으로, 실험심리로,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국가에 말하기 위해서 나는 40년 이상이 걸려야 했다. (...) 전쟁의 책임은 처음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와 같이 동조하고 연합한 모든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 어느 국가에서도 전쟁으로 망가지는 인생과 장애를 가지게 되는 피해자들을 회복시킬 수 없다. 지금도 국가외교 관계를 서로 도와주고 받는 합리적인 긍정으로 풀지 못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무지한 최고권자 또는 민족들의 분쟁으로 지구상에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청년들이 전쟁을 겪게 하지 마라!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도록 한 젊은 청년들은 사회의 또 다른 인권문제로 구별해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이현숙, 2019: 122-131)

뿐만 아니라 이현숙씨는 전쟁을 다녀온 배우자 김영만이 겪은 전쟁 이후의 삶과 그것을 지켜보며 함께했던 가족으로서의 고통을 책에 담아 사회에 알렸다.

참전군인 가족은 베트남전쟁을 잊지 않는다. 참전군인에게도 그렇듯 그의 가족에게도 전쟁은 계속된다.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가족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평화를 실천하려 노력해왔다. 평화단체를 후원하고, 베트남전 한국군 피해 마을에 해마다 조화를 보내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다. 지금도 계속 가족이 겪었던 전쟁을 마주하기 위해 평화의 길을 찾고 있다.

1972년 월남에서 전사한故박순유 중령 가족의 베트남 빈딘성 장학사업도 소개할만한 사례이다. 2004년, 육 남매 중 다섯째인 박숙경씨는 3주간 베트남을 여행하고 난 후 가족들에게 아버지가 전사한 빈딘성에 무언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한다. 가족들의 동의를 구해 후원금을 마련하고 부산 아시아평화인권연대가 주축이 되어 2007년부터 베트남 빈딘성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시작했다. ‘故 박순유 한-베평화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사업과 더불어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는 보통 전쟁의 당사자로 참전군인을 이야기하지만, 그와 함께 살았던 혹은 살아가는 가족들도 참전군인 못지않은 중요한 당

사자성을 지닌다. 참전군인의 가족은 남편, 아빠, 아들, 삼촌인 그의 슬픔과 분노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들이다. 전쟁에 동원된 가족의 짐을 서로 나누어졌다. 가족 중 누군가가 참전하여 겪은 일에 대해 남은 이들은 동일한 분노와 함께 부채의식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는 참전군인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 설문조사

### : 참전군인이 생각하는 평화란?

평화 또는 평화운동에 대한 그들의 생각, 참전군인과 평화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심층 인터뷰는 대상을 특정하여 진행된 것이었다. 그들의 생각은 어쩌면 보통의 참전군인이 가진 생각보다 우리가 정의하는 평화의 개념에 더 가까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 보통의 참전군인은 평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평화에 대한 참전군인 인식조사도 함께 진행해보기로 했다.

2021년 8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공동체(개인적이지 않은) 평화에 대한 참전군인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총 47개의 설문 응답을 받았다. ‘평화’와 ‘평화활동’에 대한 앞선 정의에 따라 설문 문항을 설계하고 조사를 통해 참전군인이 생각하는 ‘평화’란 무엇인지, ‘평화활동’에

대한 관심과 활동 의지를 어느 정도 가졌는지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인식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싶은 점이 많았으나 참전군인이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 평소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항 설계 과정에서 욕심을 내리고 설문의 내용을 최대한 쉬운 표현과 짧은 내용으로 구성하여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인식조사를 확인하는 정도로 정리하였다. 또 연구 주제에 맞추어 ‘평화’를 종교적 의미나 개인의 범주로 해석하지 않도록 ‘공동체 평화’라는 단서를 달았다.

설문조사 진행 방법은 참전군인 네트워크를 통한 방법과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섭외, 거리에 나가 직접 설명을 하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참전군인 모임이나 단체 활동이 멈춰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데 무척 어려움이 많았다.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보내고 2주가 다 되어 가도록 한두 장밖에 받지 못할 정도였다. 가만히 앉아서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대학로와 중앙보훈병원에 나가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지를 들고 참전군인에게 다가가니, 예상외로 흔쾌히 참여해주는 분도 있었지만 오랜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거나 끝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 시도한 설문조사는 코로나19 상황 탓에 잠시 휴식을 위해 건물 밖으로 나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체로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직접 문항을 읽고 표기하기조차 쉽

지 않아 곱절의 노력이 필요했다. 병원 앞에 나온 환자들에게 무작정 다가가 “월남에 다녀오셨어요?”라고 물으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 환자들 중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비율이 높았던 점도 인상적이었다.

설문은 총 네 가지 질문이다. 첫 번째 질문은 평화에 대하여 정의한 문항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와 가장 가까운 것을 우선순위로 골라 세 가지를 적는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평화’는 총 아홉 가지로 아래와 같다.

- 1)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전쟁 피해자가 없는 상태
- 2)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 상태
- 3) 기후 재난(자연재해) 또는 질병의 위험이 없는 상태
- 4) 범죄율이 낮고 치안이 잘 유지되는 상태
- 5) 차별과 혐오가 없는 상태
- 6) 일하는 사람(노동자)이 살기 좋은 상태
- 7)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회
- 8) 빈부격차가 적고 복지가 잘 구현된 사회
- 9) 기타 : 항목에 없음 (직접 기재)

두 번째 질문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이다. 이어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정부 및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참전 관련 단체, 개인 중 해당하는 대상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또

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는 질문도 덧붙였다. 중복 선택이 가능하고 항목은 아래와 같다.

- 1) 단체 후원/기부
- 2) 자원봉사
- 3) 집회/시위 참여
- 4) 단체나 모임 활동 참여
- 5) 학생 및 시민 대상 교육 활동에 참여
- 6) 기타 : 항목에 없음 (직접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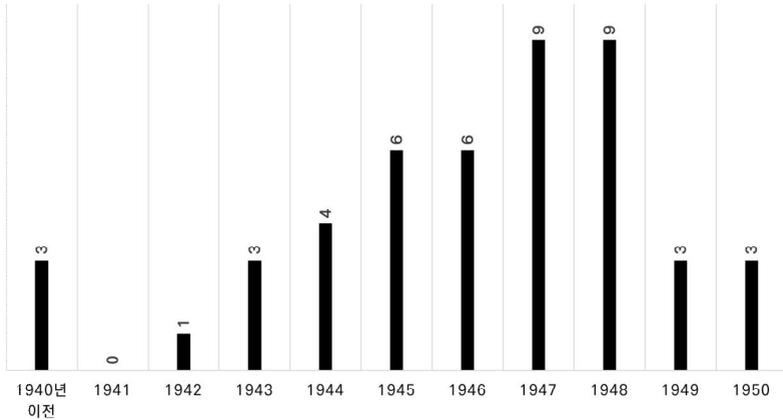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과거에 “평화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묻고, “앞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해 보거나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서울시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 최나현 ©석미화

## 기본 인적사항

: 베트남전쟁에서 1년 이상 보병으로 근무한 병장



[도표1] 설문 응답자의 나이 분포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석 달 동안 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대면조사, 전화와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총 47명의 응답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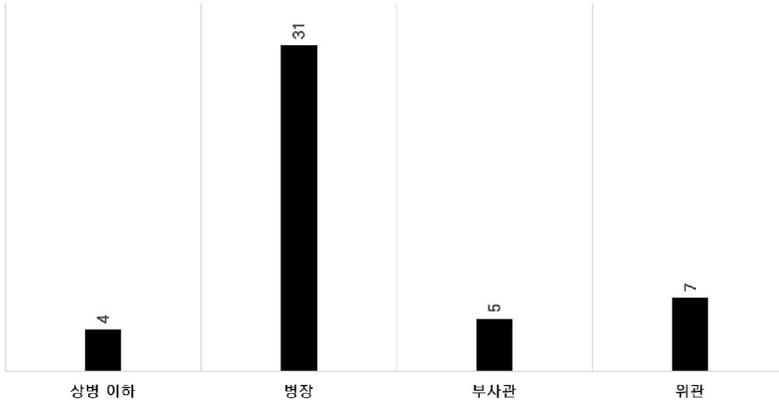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만74세(1948년생)~77세(1945년생)가 3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이전과 이후의 출생자가 17명이다. 서울과 경기 인근은 대면조사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원거리의 경우

온라인과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짧은 조사 기간과 조사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최초에 50명을 목표로 삼았으며, 최종적으로 47명에 대한 조사로 마무리하였다.

설문 응답자 47명은 모두 베트남전쟁 또는 6.25전쟁 참전군인이다. 4명을 제외한 43명의 참전 횟수는 모두 1회(91.5%)였는데, 2회(8.5%) 이상 참전한 것은 베트남전쟁 동안 몇 차례의 파병 과정에 걸쳐 청년들을 차출, 선발 또는 지원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러한 특수성에 따라 한 번 이상 파견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참전 시기도 베트남전쟁 파병기간(1964년부터 1973년)에 해당하는 1960년대와 1970년대가 45명(95.7%)이었고, 3명(6.4%)이 1950년대를 택하였는데, 이는 6.25전쟁 참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참전 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이 29명(61.7%)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1년 미만이 14명(29.8%), 2년 이상이 4명(8.5%)이다.

참전 당시 계급은 상병 이하 4명, 병장 31명, 부사관 5명, 위관 7명으로, 병사 중 가장 높은 계급인 병장에 해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다만 ‘참전 당시 계급’이라는 질문을 ‘베트남으로 파병될 당시 계급’과 ‘베트남에서 제대(또는 귀국)할 때 계급’을 구별하지 않고 기입한 경우가 다수 있어, 병장으로 표기한 이들의 경우 상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표2] 베트남전쟁(또는 한국전쟁) 참전 당시의 계급에 관한 응답

참전 당시의 보직은 분류로 범주화할 수 없는 병과를 기록하거나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보병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공병, 헌병, 의무, 보급, 통역, 행정 등이 13명으로 확인된다. 보병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소화기를 가지고 근접 전투를 수행하는 육군의 병과를 지칭하며, 적군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아군의 영토를 방어하는 등 지상전을 담당하기에 전쟁에서도 실제 전투 경험이나 위험도가 다른 병과보다 많거나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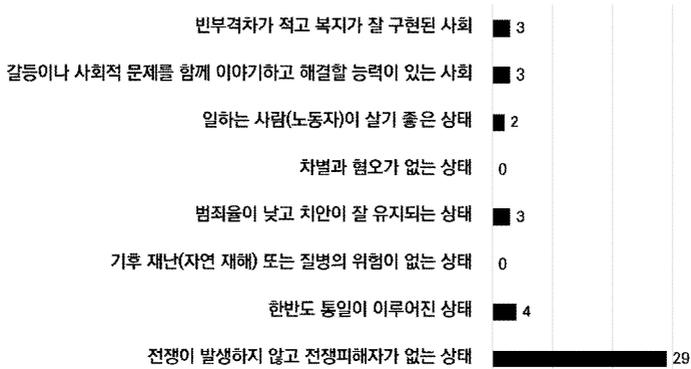
## 세부 설문 응답

: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평화이며,  
향후 평화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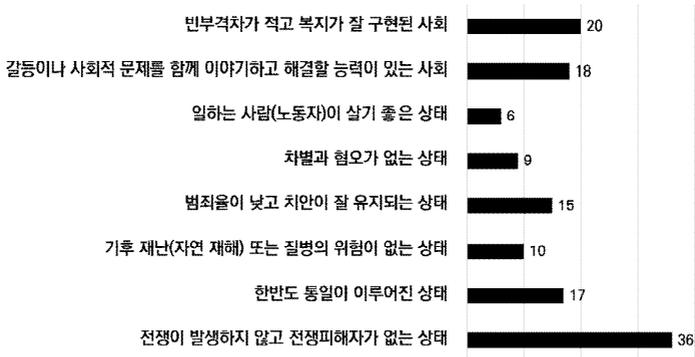
참전군인은 평화를 어떻게 정의할까? 제시한 항목 중 자신이 생각하는 ‘공동체 평화’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뽑도록 하였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전쟁 피해자가 없는 상태’이다. 47명 중 29명이 1순위로 전쟁이 없는 세상을 평화라고 정의하였다. 그다음으로 많이 뽑은 평화의 의미는 12명이 선택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3순위로는 ‘빈부격차가 적고 복지가 잘 구현된 사회’가 12명의 선택을 받는데, 이 항목을 순위 이상의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1순위로 고른 사람은 3명뿐이지만, 1-3위를 포괄하는 전체 순위에서는 총 20명이나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2순위로 많은 선택을 받은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 상태’가 전체적으로 17표를 받은 것보다도 높은 결과이다.

우선순위를 벗어나 1-3위에 걸친 전체적 순위도 확인해보았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1순위로 뽑아 참전군인이 생각하는 평화의 상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무엇을 가장 보편적인 평화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것을 예상하기는 했지

만, 실제로 전체적인 항목이 고르게 선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참전군인이 평화를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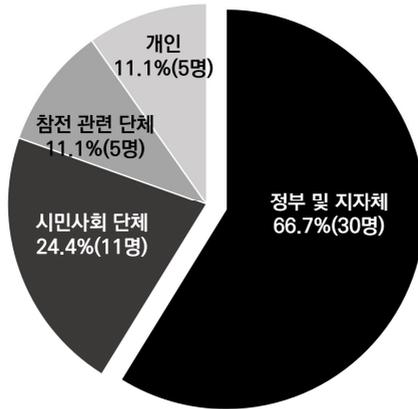


[도표3] 자신이 생각하는 '공동체 평화'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선택한 1순위



[도표4] 자신이 생각하는 '공동체 평화'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선택한 1-3순위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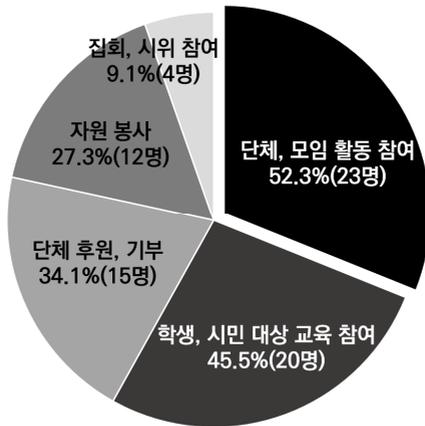
공동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33명(71.7%)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실현 주체로 가장 많이 뽑은 것은 30명(66.7%)이 선택한 ‘정부와 지자체’였다. 그다음으로는 11명(24.4%)이 선택한 시민사회가 꼽혔고, 참전 관련 단체와 개인(시민)으로 뽑은 숫자가 각 5명(11.6%)으로 가장 적었다. 다만,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하는 주체로 참전 관련 단체를 꼽는 참전 군인이 있다는 점은 의미있게 해석된다.



[도표5] ‘공동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또는 구체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주체에 관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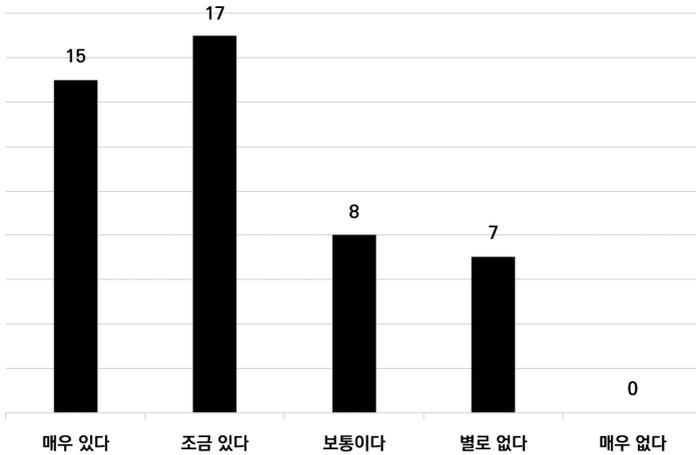
이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또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단체나 모임 활동 참여’가 23명(52.3%)의 선

택을 받았다. 유사한 수치로 20명(45.5%)이 ‘학생 및 시민 대상 교육 활동에 참여’ 항목을 골랐다는 점 또한 유의미하게 해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단체 후원/기부’가 15명(34.1%), ‘자원 봉사’ 12명(27.3%), ‘집회/시위 참여’가 3명(9.1%)이었다.



[도표6] ‘공동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또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답변

평화활동에 대한 참여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있다’와 ‘없다’ 각각 절반(48.9%)에 가까운 수치로 응했다. ‘있다’의 경우, 앞선 응답에서 ‘(참전)단체활동 참여’나 ‘자원봉사’를 평화 활동으로 간주하여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도표7] 앞으로 ‘공동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해보거나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의향이 있는 지에 관한 응답

무엇보다 ‘앞으로 평화 활동을 해나갈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총 29명이 ‘매우 있다’ 또는 ‘조금 있다’와 같이 긍정 답변을 보였으며, ‘보통이다’와 ‘별로 없다’가 나머지를 차지했다. 소극적 의사를 표명한 때도, 대부분이 평화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거부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파서” 등을 이유로 들었다.

## 설문조사를 통해 찾은 답

### : 우리는 참전군인을 모른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비록 그 표본이 많지는 않았지만, 참전군인의 평화에 대한 인식과 평화활동 의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 있는 방향이 되어 주었다.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참전군인이 보편적으로 갖는 평화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지 않거나, 평화를 중요치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평화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선택한 참전군인이 많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활동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답변이 많았다. 전쟁의 경험이 가져온 그들 세대의 특성상 전쟁 없는 상태를 평화로 꼽은 것은 수궁이 가는 답변이었다.

또한, 광복 전후에 태어나 전후복구의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청장년 시절 민주주의를 배우고 경험하지 못한 이유로 평화활동의 주체를 ‘나’ 혹은 시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보기보다는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로 생각하는 경향도 보였다. 그러나 평화활동으로 ‘학생 및 시민 대상 교육활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선택한 것은 자신의 전쟁 경험 혹은 평화에 대한 지향을 공적 공간에서 실현해 보고자 하는 의지의 투영이 아닐까 추측하게도 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 그러한 평화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참여해 보고자 하는 참전군인의 마음도 읽을 수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참여 의향을 ‘보통’이나 ‘별로 없다’고 적은 이유에 대해 재질문을

했을 때 그들 스스로 ‘너무 높고 남은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는 점이였다. 이처럼 참전군인 인식조사를 통해 평화에 관한 관심과 활동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전군인 스스로 갖는 높은 의지와 요구에 비해 그들의 평화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하고, 참여 기회도 적다는 점이 안타깝고 아쉬웠다.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에서 참전군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 석미화 © 최나현

chapter 4.

참전군인의 평화활동을 찾아서  
: 미국 사례

## 당신이 아는 ‘베테랑’은 누구인가?

영어로 참전군인, 은퇴군인, 고참병을 의미하는 단어는 ‘veteran(베테런)’이다. 근래에는 특히 ‘어느 한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지칭하는 단어로 프랑스어 ‘vétérán(베테랑)’을 많이 사용한다. 이 말은 라틴어 ‘veteranus(베테라누스)’에 기원을 두는데, ‘오래된, 늙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노련한 군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참전군인을 지칭하는 단어는 애초에 나이와 관계가 있는 셈이다. 보통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의미이므로 그만큼 많은 교훈을 깨달아 ‘노련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할리우드 전쟁 영화 속 참전군인을 떠올려 보자. 주인공은 적진으로 거리낌 없이 돌진해 일당백의 역할을 해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기꺼이 위험도 감수한다. 땀박질 한번에 금세 벽을 타고 올라 양손으로 총을 쏘기도 하고, 제 목숨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동료는 물론이고 아이나 여성을 구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 ‘전쟁 베테랑’은 이러한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는 대체로 전쟁을 무용담으로 말하는 할아버지, 동네 아저씨, 선생님을 만나 왔다. 의미 없이 주고받는 ‘자랑하기’와 ‘자랑 들어주기’ 릴레이 속에 ‘진짜 전쟁’ 이야기는 사라진 지 오래이다. 세대 간의 대화 속에서 전쟁은 더는 특별하거나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며, 그 속의 참전군인은 더더욱 관심 영역 밖으로 밀려났다. ‘저 이야기를 들을 바에는 차라리 영화를 보는 게 낫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 또 다른 ‘베테랑’들이 있다. TV나 게임이 전쟁을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가만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전쟁은 결코 멋지고 화려하지 않아. 그저 다른 겁쟁이에게 자신을 보이기를 싫어하는 겁쟁이의 싸움일 뿐이라고!” 답답한 마음에 호통을 치기도 한다. 전쟁 경험을 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다. 그것은 때로는 ‘기억’이고, 때로는 ‘성찰’이며, 때로는 ‘평화’이기도 하다.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는 어디일까?” 누구나 어렵지 않게 미국을 떠올릴 것이다. 한 줄 자기소개를 남긴다면 ‘전쟁으로 시작하여 전쟁으로 끝난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

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다. 그렇게 쉬지 않고 전쟁을 벌인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베테랑’이 있을까? 또 우리가 만나지 못한 혹은 가까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세계에는 얼마나 다양한 ‘베테랑’이 있을까?

이 장에서는 자신의 참전 경험을 토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과 실천을 고민하는 미국 참전군인과 참전관련 단체의 평화활동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발자취는 생각보다 한국과 가까운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평화재향군인회

(VFP : Veterans For Peace)

2012년 봄 중국 상하이를 거쳐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엘리엇 애덤스, 타렉 카우프, 마이크 해스티는 갑자기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입국거부를 당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한창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태려고 어렵게 한국을 찾은 것인데, 기관 관계자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들의 입국을 승인해 주지 않았다. 제주도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세 사람은 미국 평화재향군인회(VFP: Veterans For Peace) 소속 회원이었다.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만남이 무산된 것도 아쉬웠지만, 제주에서 만나기로 한 한국 평화재향군인회와의 연대 기회가 사라진 것에 크게 실망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자신들을 거부한 이유를 “입국

전부터 우리가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기다렸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한국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과 관련한 국제연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우리 단체 회원들은 주미한국대사관 앞에서 계속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전미 평화재향군인회 회의를 열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 주민들과 연대를 확인하고, 오바마행정부와 미 의회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에 일조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제출하였다.

2015년 겨울 미국 평화재향군인회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제주도를 찾았다. 이번에는 한국과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에 참전했던 13명의 미국 참전군인 회원도 함께했다. 3년 전 한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카우프도 그중 한 명이었다. 이번에도 그는 입국과 동시에 20여 분간 개인 조사를 받았다. 백발의 노인부터 건장한 청년까지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구성원이었지만, “해군기지 건설은 세계 평화의 답이 될 수 없다”, “전쟁을 끝내고 군사주의를 종식하려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평화운동가들이었다. 강정마을에서는 비를 동반한 강풍을 견디며 밤샘 시위와 단식 투쟁이 한창이었다.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회원들은 이곳을 단순히 방문하여 목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피켓을 나누어 들고 함께 비를 맞았다. 제주에서 5일 동안 일정을 보

내며 그들은 언제나 진심으로 행동했다. 해군기지 건설 공사장 정문 앞에서 매일 열리는 평화 미사에 참가하였고, 제주시청에서 열린 강정 평화 촛불문화제에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전쟁의 기억을 나눴다. 5일 동안 강정마을 등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와 평화 확산 운동을 벌이며 이들은 “왜 미국 평화재향군인회는 한국 제주와 오키나와에 왔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을 준비해 와 만나는 이, 스치는 이 누구에게나 정성스레 나누어 주었다. 이들은 제주 일정을 마치고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활동을 펼치는 일본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떠났다.

“우리는 한국의 제주와 오키나와의 민중들이 미 제국주의에 가장 압박받았던 사람들에 속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의 공유된 역사는 계속 억압되고 있습니다. 정의의 옳은 편에서 있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예로운 일입니다.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목격자로서 쓰는 것, 연설하는 것들이 우리 미국 정부와 한국, 일본의 정치 실권자들에게 의해 저질러지는 불의들에 한 줄기 빛을 비추기를 희망합니다.”

-2015년 12월,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한 미국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전단 중

한편 수십 대의 전투기가 하늘을 도화지 삼아 오색 빛깔 연기를 뿜으며 아찔한 곡예비행을 펼치는 어느 에어쇼 현장. 감탄과 박수가 터져 나오는 인파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 사람이 행사장 입구에서 무기 판매를 반대하는 내

용을 담은 팸플릿을 관람객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를 저지하려는 사람들과 다툼이 생긴 것이다. 각종 군 행사장에서 ‘전쟁 반대’ 깃발을 들고 죽음을 사고파는 무기 거래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나눠주는 스탠 레빈(Stan Levin)은 해병대 출신 퇴역 군인으로, 한국전쟁 참전군인이었다. 그 역시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샌디에이고지부에서 다른 동료들과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열혈 회원이다.

###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평화를 위해 행동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들은 모두 같은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다. 미국 평화재향군인회는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등에 참전한 군인과 제대군인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NGO)이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며 군사적 위협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에 개입하는 것을 감시하고, 참전군인과 전쟁 희생자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주요 활동 목표이다.

미국 평화재향군인회는 평화에 대한 포괄적인 요구를 통해 국내외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활동한다. 이 마음을 담아 만든 슬로건이 바로 ‘Peace at Home, Peace Abroad’, 즉 ‘가정의 평화가 곧 모두의 평화’라는 뜻이다.

“우리는 군국주의와 전쟁의 진정한 비용 및 결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참전군인으로서 얻은 개인적인 경험과 관점을 활용한다.”

- 미국 평화재향군인회(VFP) 목적 선언문 중

“(...)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수동적으로 메시지 ‘듣기’를 선택하지 않고 말하는 대상에 완전히 집중하는 ‘적극적인 경청’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 미국 평화재향군인회(VFP) 행동 강령 중

나의 평화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내가 사는 동네를 거쳐, 나의 국가와 세계의 평화를 지향하는 태도이다. 또한, 인종, 성별, 종교 등을 포괄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편견, 군사주의, 식민지주의가 현대 전쟁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목소리를 내어 억압받는 이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 **우리의 이야기는 전쟁의 공포와 현실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소속 회원은 지부와 주제 모임을 통해 미국 전역뿐 아니라 푸에르토리코, 베트남, 영국 등 세계 전역의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발히 평화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크게 세 분

야에서의 활동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한다. 전쟁의 실상을 알리고, 평화적 문화를 구축하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활동이다.

첫째, 전쟁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무기 구매, 군대 운영 등 군비 경쟁에 사용되는 규모를 알리고 핵무기의 위험성을 고발하며 궁극적으로 제거까지 요구한다. 또한 분쟁지역에서 사망하는 민간인과 군인의 피해, 참전군인의 트라우마(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와 자살, 민주주의에 대한 피해를 이야기한다.

둘째, 평화적 문화 구축을 위해 ‘전쟁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회적 문화에 저항하는 활동을 펼친다. 단체 회원이 작가로 활동하며 전쟁을 알리는 책을 쓰거나 신문에 기고하기도 한다. 입대를 고민하는 청년들과 만나 군의 현실을 알리고, 군사화에 반대하는 청소년·청년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활동도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는 현역 군인을 지원하고 ‘인권 핫 라인(GI Right Hotline)’을 만들어 지원이 필요한 현역 군인과 그의 가족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와 시스템을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평화재향군인회는 교육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학교나 기관을 방문하여 참전군인이 직접 전쟁의 경험을 공유하고 학부모와 교사에게 군 채용의 진실을 알리는 등 다양한 평화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교육 전문가 및 연구자와 협업하여 이

를 위한 교육 키트를 만들어 배포한다. 이 과정에서 군 모집에 지원하려던 청소년·청년들을 반전 활동가, 군 대응 활동가로 성장하도록 돕기도 한다.

셋째,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현장 지원 및 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이라크전쟁 피해지역의 학교와 병원에 정수 시설을 설치하는 ‘이라크 물 프로젝트(Iraq Water Project)’, 베트남전쟁에서 사용된 고엽제로 피해를 겪는 베트남과 미국의 참전군인, 그의 자녀들을 지원하는 ‘에이전트 오렌지 캠페인(Agent Orange Campaign)’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미국의 노숙자 중 약 30%가 은퇴 또는 제대군인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알코올의존증, 약물 남용, 우울증 등을 치료하거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노숙인 참전군인 워킹 그룹(Homeless Veterans Working Group)’,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동참을 만드는 ‘공감 캠페인(The Compassion Campaign)’도 진행한다. 분쟁 국가 지역의 민간인과 난민을 보호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러한 관심이 참전군인 단체와 연결고리를 찾기 힘든 주제처럼 느껴질 지도 모르겠다. 평화재향군인회는 “환경과 군국주의, 전쟁과 기후변화는 매우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라고 답한다. 베트남전쟁에서 사용한 고엽제 같은 생화학무기가 어떻게 극심한 환경오염을 유발하

는지, 폭격과 지뢰가 얼마나 잔인하게 지형을 뒤바꾸고 생명을 파괴하는지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평화재향군인회는 세계 평화와 전쟁 종식이라는 대의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약속으로 연결된 참전군인, 가족, 친구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현충일에 정부, 대중매체, 전통적 참전군인 단체에서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주제와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진정한 대가를 기억하며 매년 현충일을 기념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에서 사망한 모든 사람을 기억하고, 전쟁의 승리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개인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그 애도를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민간인 희생자들과 그의 가족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른 이들을 무시한 채 일부의 죽음만을 기리고 기억하는 것은 전쟁을 지속시키고, 전쟁의 도덕적 상처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 미국 평화재향군인회(VFP) 2021 현충일 기념 입장  
(WHO DO YOU REMEMBER ON MEMORIAL DAY?) 중

## 코리아 피스 캠페인

미국 평화재향군인회는 한국의 평화를 지지하고 함께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다. 일명 ‘코리아 피스 캠페인(Korea Peace

Campaign)’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오랜 시간 막대한 비용과 극단적 대립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한국전쟁과 분단을 지목하고, 이를 평화적으로 끝냄으로써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자는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자들이 코리아 피스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002년 이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주로 미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평화 교류단을 통해 연대활동을 이어가고, 한국전쟁의 희생자들을 지원하며, 한반도가 완전히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활동을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대규모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2015년에 제주도를 찾았으나 입국하지 못한 활동가 세 명의 일정이 바로 코리아 피스 캠페인 활동 중 하나였다. 그리고 한국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당시 대표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이 있는 이 단체 회원들이 2006년 한국을 방문하여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집회 현장과 황간면 노근리, 비무장지대(DMZ) 등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코리아 피스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이들은 참여연대 강당에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그 당시 진행 중이던 부시 정부의 이라크전쟁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특히 전투 현장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이 있기에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 병사들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 부담과 고통의 무게를 더욱 생생히 전했고, 미군이 벌이는 전쟁의 부당함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미군에 희생된 효순·미선 사건을 기리는 평화공원 건립을 위해 기부금을 보내거나, 주한미군 규모와 비용 감축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미국 전역에서 회원들이 모여 ‘한국 평화 옹호의 날’에 참여하고 의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을 공식 지지하도록 촉구하는 활동도 펼쳐 왔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경험을 나누고, 가족 또는 동료들과 함께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자회견에도 참여한다. 이런 과정에서 참전의 경험이 주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평화의 언어와 방법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한국의 여러 시민단체, 평화단체와 함께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주변인들과 함께 서명과 인증샷 캠페인에 동참하기도 했다.

## 전쟁에 반대하는 베트남 참전군인회

(VVAW : Vietnam Veterans Against The War)

1967년 4월 15일, 뉴욕시 거리 곳곳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뻑뻑하게 모인 군중으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날 모인 사람들만 무려 40만여 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 베트남전쟁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무대 한편에서 누군가가 ‘전쟁에 저항하는 참전군인’이 적힌 깃발을 꺼내 들었고, 순식간에 즉석에서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20명이 모였다.

그중 한 명이었던 얀 베리 크럼(Jan Barry Crumb)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중퇴자로, 무선통신 전문가로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얀은 이들과 함께 당당하게 베트남전쟁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고, 다섯 명의 다른 참전군인과 새로운 반전 평화단체 하

나를 만들어보라며 마음을 모았다. ‘베트남 평화 행진 위원회’ 사무실에 책상과 전화기를 놓는 것을 시작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베트남 참전군인회가 이름을 알리게 된다.

### **망각과 낙인을 거부하는 마음**

전쟁에 반대하는 베트남 참전군인회는 1967년 미국의 군사 정책과 베트남전쟁 참전에 반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단체(NGO)이다.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참전군인 조직이 결성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베트남전쟁 시기에 가장 영향력 있고 주도적으로 활동한 반전 평화단체 중 하나로, 회원이 가장 많을 때는 3만 명 이상의 참전군인과 지지자들이 함께 움직였다. 베트남전쟁에서 본인이 직접 목도한 잔인한 실상을 폭로하며 미국과 전 세계 시민들에게 전쟁의 본질을 알리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다가, 참전군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적, 생계적 지원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최초로 전쟁 트라우마(PTSD, 전쟁으로 인한 외상 후유증)를 다루는 연구 및 토론 그룹(Rap Group)을 조직하여, 이에 대한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알리고 보훈처에서 재적응을 상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전쟁 트라우마’라는 개념은 이러한 시도와 노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1970년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이제 막 새로 단체를

꾸린 전쟁에 반대하는 베트남 참전군인회 대표들과 저명한 정신의 학자인 로버트 제이 리프턴(Rober Jay Lifton), 카임 샤탄(Chaim Shatan)이 만났다.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베트남 참전군인들끼리 친목 모임을 만들고 그 공간 내에서 전쟁의 외상 경험을 공유하고, 다시 체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개별 참전군인이 스스로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동시에 전쟁의 파괴력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망각을 거부하였지만, 보다 더 나아가 낙인까지도 거부하였다. 이러한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것은 같은 참전군인 동료들이었다. 참전군인의 마음을 돌보고 삶을 이해하는 것을 평화로 가는 시작점으로 삼은 것이다.

### **제대는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베트남 참전군인회는 군인들이 제대 후에도 계속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연대가 이어지기를 바랐다. 단순히 참전군인의 외상 치료를 지원하고 알리는 활동만 하지 않고, 활동 범위와 의제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에 대한 군인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조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도 하고, 고엽제 피해를 은폐하려는 정부와 화학 제조사들과 싸우며 피해자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는 활동도 오랜 기간 지속했다. 1,100명 이상의 참전군

인이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의 어머니회(AGSM: American Gold Star Mothers)’와 함께 목소리를 외치며 거리 행진에 참여하고, 이후에는 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들에게 전쟁 종식을 위한 제안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특히 800명 이상의 참전군인이 베트남전쟁 참전 공로로 받은 훈장 메달과 리본, 제대 서류, 전리품 등을 미국 국회의사당 계단에 던지는 퍼포먼스 장면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압박 덕분에 베트남에서 자행된 잔학 행위와 전쟁에 대한 미국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 여러 차례 의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라크전쟁 같은 현대 전쟁에서 미군의 잔혹한 범죄가 드러날 때는 언론과 정치인들을 향해 “개별 군인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명령하거나 묵인한 실제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모두 베트남전쟁에서 체험하고 느낀 판단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 **참전군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전쟁에 반대하는 베트남 참전군인회는 누군가에게 전쟁을 ‘가르치기’에 앞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였다. 그것은 단체의 주요 회원인 참전군인들과 이들의 가족, 동료 지지자들에게 전쟁의 무의미를 교육하고 대중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야 할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좋은’ 마음으로 군에 입대하여 전쟁터로 간 것이었지만, ‘좋은 사람’은 결국 ‘나쁜’ 일을 했다. 반면에 ‘나쁜’ 사람들은

가끔 ‘좋은’ 일을 했다. 생사를 오가는 참혹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은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거짓말의 실체였고, 세상에 대한 깊은 분노와 배신감이었다. 이후 전쟁에 반대하는 베트남 참전군인회는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에서 자행한 미군의 잔혹 행위를 밝혀내는 어려운 활동을 감수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참전군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에 계속 생채기를 남길 수밖에 없다. 단체 내의 참전군인 동료들을 보듬고 슬픔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긍정적 자기 극복과 경험의 말하기를 통해 이들 스스로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데에도 힘썼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인 1967년, 우리는 단체를 설립하며 참전군인의 평화, 인권,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 우리는 모든 군인과 우리의 이름으로 수행된 전쟁의 희생자들이 정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싸워야 합니다. (...) 처음에는 50년 후에도 계속 투쟁 중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이후로 좋은 형제, 자매들을 여럿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살 청년 때처럼 활동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기에 할 수 있는 일과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고 집단 조직의 힘을 보았지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목소리를 통해 가능합니다.”

- 빌 브라슨(Bill Brason), 전쟁에 반대하는 베트남 참전군인회 이사,  
《The VETERAN》 2016년 가을호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무분별한 군사적 모험과 시도에 반대하고 베트남전쟁의 진정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갈 것이라 당당히 밝히고 있다. 다음 세대가 똑같은 전쟁의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러한 행위가 모든 시대의 참전군인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베트남전쟁에 반대하는 참전군인의 평화활동은 후세대의 사람들에게 게도 깊은 감명과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전쟁에 반대하는 참전군인회(Veterans Against The War)’ 등 9·11 이후의 참전군인 또는 제대군인이 모인 반전 평화단체는 전쟁에 반대하고 군사 무기, 전술을 외교적 무기로 사용하는 정책에 대항해 온 앞선 참전군인 세대를 ‘선배’라 칭하며 고마움과 존경을 표한다. 그러한 활동 정신과 태도를 이어받겠다 선언하고, 군의 내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해외 분쟁과 국내 지역 사회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피테, 테드 그리고 앤드루

해병대 장교로 한국전쟁에 참여하였던 피테 맥클로스키(Pete McCloskey)는 고향 캘리포니아의 유명 인사이다. 미국 의회의원으로 공화당 대통령 예비후보로 두 번씩이나 도전하며 쌓인 인지도 덕분에 있지만, 한국전쟁에서 부상하고 귀국한 후부터 평화운동가로 활동해 온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전쟁의 포화 속에 죽어가는 두려움을 느껴보는 경험을 누렸다면, 또 만약 당신이 폭탄이 떨어져 사람들을 찢어놓고 그들이 불에 타 죽으며 엄청난 부상을 입는 광경을 목격했다면, 당신은 평생 전쟁을 반대할 특권, 아니 사명감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보았고,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 한국 전쟁 참전군인 피테 맥클로스키

전쟁 시기에 그는 총검 돌격을 6번이나 앞장서 진두지휘할 정도로 용맹하고 헌신적이었으며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도 여러 개 받았다. 그 후 미국에 돌아와 평화를 고민하며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전쟁 반대 메시지를 외쳤다. 마침내 전쟁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출된 최초의 공화당 의원이 되었다. 매클로스키는 한국전쟁 참전군인으로서, 베트남전쟁과 이라크전쟁에 청년들을 보내는 것에 강력히 저항하였고 지금도 고향의 작은 농촌 마을에 살며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화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테드 잉글만(Ted Engelmann)은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이다. 21세의 나이와 병장이라는 직급만을 가지고 덜컥 베트남으로 떠나, 1년간 미 공군의 공습을 지휘하는 근무를 수행하였다. 그의 아버지 또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이다. 미국에 돌아온 후에는 교사로 일하며, 베트남 하노이의 유엔 국제학교에서 전쟁에 대하여 가르친 유일한 미국 참전군인이 되었다. 현재도 교사와 학생들을 돕는 것을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비용을 받지 않고 교육, 회의, 워크숍 등에서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을 나누며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치른 전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활발히 전하고 있다.

특히 테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분쟁지역에서, 참전군인 관련 행사와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그는 사진을 통해 대중에게 당신의 주변에도 참전군인과 그의 가족이 있음을 알리고,

참전군인과 퇴역 군인이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말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참전군인 문제에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길 바랐다. 또한 자신도 전쟁 트라우마를 극심히 겪는 사람으로서, 참전군인과 그의 가족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한다.

앤드루 바세비치(Andrew J. Bacevich)는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으며, 이후로도 23년간 육군 장교로 복무한 군 전문가이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자신을 ‘가톨릭 보수파’라 자처하며 네오콘의 태도를 보인 강경극우파였다. 2001년 9·11 사건을 겪으며 미국의 안보 정책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결정적으로 부시 정부의 이라크전쟁 결정을 계기로 군사주의에 완전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다. 냉전 시대 이후의 미국 외교 정책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향’에 따라 바뀌어 왔음을 폭로하고,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군사적으로 풀려는 미국의 오만하고 위험한 군사주의적 태도가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를 파헤쳤다. 이후 미국 안보 정책 비판가로서 대중적 명성과 학계의 지위를 얻었다.

특히 “대중문화가 전쟁을 낭만적이고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대중이 실제 전투와 병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매우 비현실적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태도로 접근하게 만든다”라

고 주장하면서, “이 전쟁은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며, 경솔하다. 분명 또 다른 베트남전쟁이 될 것”이라고 외치며 정치사회 분야의 최전선에서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는 활동을 활발히 펼치기도 했다. 그의 아들 역시 육군 장교로 이라크에서 근무하였는데, 안타깝게도 반군의 폭발물 사고로 전사하였다.

## chapter 5. 나가며

## 참전군인을 평화활동 동료로 초대하기

참전군인에게 진지하게 접근해 보자고 생각한 것은 그들의 삶을 구술로 만나고부터이다.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어린 시절의 기억과 참전 동기, 전쟁 이후의 삶까지 전 생애에 걸쳐 펼쳐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는 70대 황혼녘에 이른 그들의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만나는 일이었다. 삶의 끝자락에서 그들은 전쟁의 경험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 어떤 이는 전쟁터에 안 갔으면 더 나은 삶을 살았으리라 한탄 섞인 회한을 내뱉고, 어떤 이는 전쟁에 가는 일을 그저 숙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적어도 그동안 만난 참전군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에 자리한 ‘전쟁의 경험’을 긍정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전쟁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므로, 살기 위한 방편으로도 필요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폭력의 현장에 서도록 했다는 이유로 ‘국가’라는 시

스텝을 부정하거나 비판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젊은 날 자신의 희생으로 나라가 잘살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경험에서 온 끔찍한 고통은 그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그리고 그런 전쟁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평화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참전군인이 생각하는 ‘평화’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집단화되어 표출된 일부의 생각을 그들 모두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여겼다. 참전군인을 역사나 전쟁 속에 대상화된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보는데 인색했다. 그들을 평화활동의 동료로서 바라보는 것,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질문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평화의 방법으로서 참전군인과의 만남과 대화를 이어갔다.

참전군인과 나누는 대화에는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을 넘어선 인식과 복잡다단한 측면을 함께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했다. 언제나 질문에서 이러한 측면을 놓지 않았고, 그들도 전혀 불편함 없이 생각을 펼쳐 보였다. 참전군인은 베트남전쟁이 지닌 가해의 역사를 성찰하는데 국가의 책임 있는 해결이 필요하다는 태도와 더불어 단지 가해와 피해로 말할 수 없는 전쟁의 특수성과 폭력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하였다.

표명렬 참전군인은 “월남전은 부끄러운 전쟁이고, 자신도 전쟁에 참전했지만, 군인들은 가라고 하니까 목숨 바쳐 싸운 사람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위험한 전쟁터에 간 사람들을 헌신짝 처럼 대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참전군인을 가해자의 자리에 세우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묻는 질문에 류진성 참전군인은 “가해자인 것은 변함없다”라며 “그렇지만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점을 동시에 봐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우리가 인터뷰를 통하여 만난 모든 참전군인이 입을 모아 말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이해도 없이 국가에서 보내 가게 된 전쟁이고 군대라는 상명하복의 특수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또 “전쟁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 짓는 게 불가능하며 그것은 답도 없는 논쟁을 불러올 뿐”이라며 “보다 큰 그림을 보며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말했다. 그들은 참전군인이 ‘가해의 자리’에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가해로만 해석되는 현실’은 우려했다. 우리가 베트남전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운동을 펼쳐 가지만, 가해와 피해의 논쟁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진상규명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는 빠진 채 참전군인을 심판대 위에 올리고 ‘증언’과 ‘사과’를 종용하는 방식만을 취하는 건 아닌지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대목이었다.

가해와 피해의 산을 넘어 ‘참전군인의 평화활동은 가능할까’, ‘참전

군인의 평화활동은 가능하다'라는 질문과 가설을 동시에 세우고 연구는 시작되었다. 물음표에서 마침표로 결론을 맺기 위해 참전군인의 평화활동 가능성을 확인해야 했다. 이를 위해 평화활동을 하는 참전군인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하고 여러 참전군인을 만나 평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또 해외 참전군인단체의 평화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바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먼저 한국 참전단체와 참전군인의 평화활동 사례를 찾아보았는데, 현재 공법단체로 등록된 참전 관련 단체 중 평화활동으로 소개할만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 2005년 출범한 평화재향군인회 활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활동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로 단체를 창립한 표명렬 예비역 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베트남전 전투소대장으로 참전하기도 했던 그는 미국의 평화재향군인회 활동을 보고 충격을 받아 단체를 만들었다고 한다. '군인으로서 평화활동을 하고 싶었다'라는 그는, 여전히 글로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평화재향군인회 활동이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리가 만난 참전군인은 모두 전투병이었다. 베트남전쟁 참전을 결정하고 전투부대 파병이 시작된 1965년부터 1973년 철군까지 맹호, 백마, 청룡부대 전투병으로 참전한 그들은 전쟁을 혹독하게 겪었고 그만큼 평화에 대해서도 간절했다. 1967년 청룡부대 전투병으

로 풍나·풍넛 학살 사건을 증언한 참전군인 류진성, 1969년과 1971년 월남을 두 번 다녀온 백마부대 전투병 양정석, 1971년 맹호부대 포병 하사로 월남에 간 김낙영, 그들은 모두 베트남전쟁을 기억하고 성찰하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참전군인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개별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그들에게 “스스로 평화활동가라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들은 대답들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겠냐”라며 당당하게 말하기도 했지만, “이 정도로 평화활동가라 말할 수는 없지”, “그렇게까지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지는 못하지!”, “내가 이 나이에 어디에 소속되어 무얼 하겠어”라며 망설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평화활동가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평화활동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 후 다시 질문해 봐도, 돌아오는 답은 “그럴 만한 나이도 아니고, 그걸 할 만한 공간도 없다”라는 것이었다. 누구나 평화를 바랄 수 있고, 또 누구나 평화를 자기 삶의 영역 속에 만들 수 있음을 알지만, 그것을 ‘평화활동가’라고 정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특히 참전군인에게는 더더욱 그럴지도 모르겠다. 자신을 구속하고 의심하고 멈칫거리게 만드는 주변의 동료, 가족, 친구를 넘어 자기 자신도 넘어야 할 벽으로 느끼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그들 세대가 지닌 사회에 대한 소극적 태도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이 할 수 있으며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만족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지닌 평화활동에 관한 관심과 의지를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더욱 많은 참전군인의 평화에 대한 인식에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대다수 참전군인은 ‘평화’를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전쟁 피해자가 없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 본인 삶에서 전쟁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부딪혀온 그들이기에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참전군인이 평화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선택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도 공감하는 답변이 많았다는 점이다. 광복 전후에 태어나 전후복구의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장년 시절 민주주의를 배우고 경험하지 못한 이유로 평화활동의 주체를 ‘나’ 혹은 시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보기보다는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로 생각하는 경향도 보였다. 평화활동으로 ‘학생 및 시민 대상 교육활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선택한 것은 자신의 전쟁경험 혹은 평화에 대한 지향을 공적 공간에서 실현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닐까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 그러한 평화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참여해 보고자 하는 마음도 읽을 수 있었다.

실제로 청소년이나 청년에게 전쟁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평화활동에 함께한 참전군인의 말은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양정석 참전군인은 평화운동이란 “전쟁의 참상을 알려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특히 “젊은이들에게

알려서 이들이 나중에 중요한 자리에 가건, 결정적인 판단을 하건, 아니면 여론에 보탬 일이 생기건 전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이걸 배워야 아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낙영 참전군인은 “청년, 청소년들이 나에게 실제 전쟁의 경험과 평화의 소중함을 들은 경험이 나중에 평화활동가가 되는 계기일 수도 있다”라며 만남의 소중함을 거듭 언급하였고, 류진성 참전군인은 “청년들이 평화에 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다”라며, 자신의 전쟁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자리가 잘 없어 아쉽지만, 앞으로도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 참전 관련 단체의 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고할 것이 많았다. 미국의 참전군인들은 전쟁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무기, 군대, 군비 경쟁 등 구체적인 폭력의 요소들을 감시·견제하고 분쟁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인피해, 참전군인 트라우마와 자살, 민주주의에 대한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전쟁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평화교육 활동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 피해지역 지원과 연대활동, 더 나아가 고엽제와 같은 생화학무기의 피해로 오는 기후변화와 환경의 문제에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또 한국과 관련해서도 2002년 이후 코리아 피스 캠페인을 벌이며 국제연대를 활발히 펼쳐가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 참전 관련 단체

와 개인의 평화활동 사례는 미래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한국 참전군인들의 평화활동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국가는 전쟁을 끝냈지만, 참전군인에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그것은 그들의 삶에 개별화한 ‘전쟁의 경험’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오고, 사회적 가치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참전군인의 평화활동을 응원하고 그것을 사회적 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연구에서 미국 참전군인의 평화활동 사례를 통해 그것이 사회적으로 또 참전군인 개인에게도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참전군인이라는 집단은 이미 그것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와 정형성 때문에 평화운동 영역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과잉 대표되고 있는 집단성과 달리, 그 집단에 포함된 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해외 참전군인의 평화활동 사례 문헌 조사, 참전군인 개별 심층 인터뷰, 평화에 관한 인식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했다. 이는 이번 연구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한 계이기도 하다. 우리의 편견과 마주하며 나와 우리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고 함께해 나갈 의지와 마음이 있음을 서로 확인하는 지점이기도 했지만, 그 역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평화운동의 가능성이 있는 참전군인을 찾아가고 만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것임과 동시에 필요한 과정이다. 그들과 동료 평화활동가로 관계 맺고 나아갈 방법을 지속해서 찾아 나가야만 한다.

그와 함께 참전군인의 평화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노력이 아니라 참전군인 자신의 노력과 시민사회, 또 정부나 지자체가 관심 두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공동체의 평화 실현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또는 구체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설문조사 질문에 66.7%의 참전군인이 정부와 지자체 항목을 뽑은 데서 국가적 책임을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베트남전 참전 주요 국가에서 자국 참전군인을 위해 복지와 일자리, 권익 대변, 사회 프로그램 또는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단순한 정책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 동의와 인식까지 고려하여 참전군인이 주체적으로 공동체 속에 자리하고 그에 합당한 존경과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참전군인 당사자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가족과 동료, 이웃과 마을, 사회와 국가 모두의 노력과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증명한다. 참전군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긍정적 시선과 전쟁 경험을 평화로 치환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평화력’이다.

이번 우리의 연구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참전군인의 평화활동의 가능성이었다. 이제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노력은 참전군인과 가족으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겨둔다.

**참전군인의 평화활동은 가능하다.**

# 보고서에 담지 못한 이야기

## 석미화의 에필로그

“월남 다녀오셨어요?”

중앙보훈병원 앞에서 환자복을 입고 해바라기 하고 있는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면 절반은 성공이다. 두 장짜리 설문지를 들고 바짝 다가앉아 가능한 한 포박포박 큰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처럼 전쟁 경험한 분들이 평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해서요. 잠깐이면 되는데 설문에 응답해 주세요. 익명이라 부담도 없어요.”

“그런 걸 뭐하려고 해.”, “귀찮아, 여기 맨날 설문 받으러 오는 거 해주면 성가시기만 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려서 할 수가 없어.”, “난 6.25참전자야.”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도 당하고 허탕도 쳤지만 2시간 남짓 있으며 10여 건은 답을 받을 수 있었다. 그곳은 또 다른 전쟁의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인

듯한 곳에서 만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은 참 소중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참전군인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평소 같으면 보훈회관이나 참전 단체 사무실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을 터였다. 1960~70년대 20대 청년이었던 그들은 지금은 70대 중반의 노인이 되었다. 코로나19를 가장 조심해야 하는 고령층이다 보니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는 코로나이고, 우린 어떻게든 그들을 만나야 했다.

어디로 가야 참전군인을 만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손을 잡아준 이는 또 다른 참전군인이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는 장소로 이끌었고, 설문지 한 장을 받기 위해서 주변에 참전한 이들을 찾아 수화기 너머로 한 자 한 자 응답을 받아 주었다. 중앙보훈병원에 가자고 제안한 것도, 동행해 준 것도 참전군인이었다. “원래는 여기가 하얗게, 이 앞이 짝 찼다고. 오늘은 면회도 없고, 외래도 없는 날이라네. 거시기 날을 잘 못 잡았네.” 괜히 미안한 마음에 그 말을 몇 번 반복했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연극 ‘별들의 전쟁’ 공연이 있던 날 참전군인들은 공연장 앞에서 민간인 학살이 거짓 날조된 주장이라며 연일 항의시위를 했다. 그들에게도 설문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용기가 잘 나지 않았다. 머뭇거리다 간신히 다가가 입을 떼었다.

“월남 다녀오셨어요?”

나의 편견이 홀로 높은 담을 쌓았을 뿐 그분들은 흔쾌히 설문에 응해 주었다. 함께 온 동료들에게 권해 주기도 했다. 연극이 시작될 시간, 설문을 더 받아야 하나, 연극을 보러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와 동행한 참전군인이 이렇게 말해 주었다. “무슨 소리야, 이거 설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아니면 못 해.” 우리 연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다.

연구를 진행하는 데 여러 참전군인 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보탤다. 그들은 전쟁과 평화에 대해 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 활동을 소리 없이 응원했다. 무심한 듯했지만 애써 주었고, 애써 주고서도 미안해했다. 본인이 힘이 없어서 그것밖에 못 했노라고 말했다. 그러면 나는 마음이 참 애달팠다. 참전군인 분들에게 큰 빛을 졌다. 기꺼이 함께해 준 그분들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부디 이 연구가 여러 참전군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제시가 되길, 그것이 마음의 빛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일 것 같다.

## 최나현의 에필로그

‘가깝고도 머나먼.’ 나와 ‘할아버지’ 사이에 놓인 다리의 거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 좋은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해 볼까 싶어 에둘러 다른 표현을 고민해 보아도 딱히 다른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굳이 자리를 피하지 않지만 마음은 경계와 긴장 태세 유지, 묻는 말에야 성실히 답하지만 딱히 먼저 질문할 것도 없다는 태도, 징검다리인지 출렁다리인지 외나무다리인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두 사람은 양 끝 지점에서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는 팽팽한 관계로 서로를 끌어당긴다. 이촌으로 엮인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웃 할아버지’, ‘선생님 할아버지’, ‘행인 할아버지’... 아무튼 ‘할아버지’ 연령대의 남성은 내게 언제나 딱 그 정도의 무게여 왔다. 근 삼십 년 동안 매일 마주치는 ‘할아버지’들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 온 셈이니 어찌 보면 참으로 피로한 관계이다.

아무리 일로 만난 사이여도 ‘참전군인’, 게다가 ‘할아버지’를 평화 활동의 ‘동료’로 초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게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참전군인’도 잘 모르는데 ‘할아버지’라니? ‘할아버지’도 어려운데 ‘참전군인’이라니?! ‘군대’ 경험은 당연히 없고, 나이 ‘어린’ ‘여성’인 자신이 그들 앞에 서는 것은 꽤나 굳은 도전 의식이 필요한 일이었다. 불편한 언어와 생각의 문법 탓에 균열이 생길 때마다 속으로 ‘군대만 다녀왔어도’, ‘남성 청년이기만 했어도’, ‘나이가 조금만 더 많았어도’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마냥 바라기만하는 무기력함으로 하루를 채워 보내는 날을 한동안 지속했다.

뭐든 자신이 실천해야 하는 때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법이다. ‘나’와 ‘그’ 사이의 거리를 인식하는 것, 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럼에도 결코 만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해야만 했다. 텍스트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막상 그를 정면에서 마주해야 하는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위해 줄다리기를 시작하려는 본능이 발동했다. ‘나이’라는 틀에 가두어 생각하려는 태도는 분명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살아온 시대와 환경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지금껏 ‘할아버지’를 만나고 이해하고 다뤄온 방식을 뛰어넘어야만 가능한 연구였기에 나름의 고민과 시도를 했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다.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 속에 시간은 눈 깜짝할 새도 없이 지나갔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정말로 그랬다. 정신 차려 보니 12월이 다 되었으니 말이다. 오전에는 출근해서 일하고, 밤에는 퇴근해서 보고서를 쓰는 건 일상이 된 지 오래이다. 월요일에 출근해서 화요일에 퇴근한 적도 있고, 밤 10시쯤 집에 오면 ‘음, 오늘은 꽤 일찍 끝났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속 단체와 조직 활동으로 풀지 못한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는 것은, 또 누군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가 하는 것 이상의 시간을 내고 발뽀팔이를 할 각오가 동반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더군다나 지금껏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고민과 문제의식을 세상에 꺼내놓는다는 건 예상보다도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막했다.

흔들리는 마음속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던 데는 함께한 동료의 덕이 크다. (실제로 그런 일은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가 군대에 대해 뭘 아느냐!”라고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어깨와 눈을 축 늘어뜨리고 다니던 내게 석미화 선생님은 “나라고 뭐가 다르냐”라며 “나이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니 분명 너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라고 용기를 주었다. 연구 도중 ‘잘하고 있는 걸까? 나의 생각을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 손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그 말을 꺼내어 보곤 했다.

활동 속에서 만난 참전군인이야말로 큰 원동력이었다. “이런 거 해서 뭐해!” 설문을 위해 종이를 들고 다가가면 큰 소리로 호통 치며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젓는 태도에 움츠러들기도 했고, 결코 닿을 수 없는 지점이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에도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설문지 대여섯 장을 쥐 보라고 하더니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금세 채워준 것도, 난처하거나 곤란해하면서도 다른 참전군인을 만날 수 있게 연결해 준 것도 모두 참전군인이었다.

‘단짠단짠’을 반복하는 ‘할아버지’들과의 관계에서 그를 더 알아가려는 시도가 자신만 어려운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다. ‘할아버지’라고 내가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결국 줄다리기는 것도 양쪽이 상대방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않나. 연구를 마치며 다시금 생각해본다. 팽팽한 긴장감과 좁혀지지 않는 거리는 서로가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자 관계를 잘 이어가려는 수단이었을 지도 모르겠다.

## 연구에 참고/인용한 문헌과 자료

### 도서

- 이진경, 2015, 『서비스 이코노미: 한국의 군사주의·성 노동·이주 노동』, 서울: 소명출판
- 이현숙, 2019, 『맑은 바다에서 긍정의 파도를 타다』, 서울: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 주디스 히먼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열린책들
- 서보혁 정옥식, 2016, 『평화학과 평화운동』,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연구단, 모시는사람들
- 최현숙, 2016, 『할배의 탄생 어르신과 끈대 사이, 가난한 남성성의 시원을 찾아』, 이매진

### 논문, 자료집

- 강유인화, 2013, 「한국사회의 베트남전쟁 기억과 참전군인의 기억투쟁」, 『사회와 역사』, 97:105~135, 한국사회사학회
- 김성란,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 베트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1권 1호:217-252
- 김주현, 2017, 「월남전 후반기(1970-1975) 귀환서사에 담긴 한국민 되기의 (불)가능성」, 『어문론집』, 70, 295-329
-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긴급 성명 미 평화재향군인회 지도자 3명, 제주도로의 입국이 거부되다, 『정세와노동』 (77), 2012.3, 159-160(2pages)

- 윤재현, 2020, 「고엽제에 노출된 월남전 참전군인의 삶의 재편성」,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성인간호학전공
- 박숙경, 2018, 「참전군인 가족이 만난 베트남」, 2018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심포지엄: 베트남 참전군인의 과거와 미래를 묻는다, 34~41
- 심아정, 2020, 「민간인학살 수행 병사들의 PTSD와 피해자들의 말하기: 중일전쟁 시기 일본군의 「병상일지」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의 증언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제7권 제2호:133~172
- 심주형, 2003,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기억의 정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전공
- 이인수, 2004,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Vol.22 No.1:11~25(15pages), 가정과삶의질학회.
- 정미경·김승용, 2018, 「한국 전쟁 참전군인들의 전쟁과 삶에 대한 의미」, 『비판 사회정책』. 58:243~278,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최정기, 2009,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민주주의와 인권』 9권 1호
- 허윤, 2016, 「‘태극기’를 이해하기 위하여-최현숙 『할배의 탄생』(2016)을 중심으로-」, 『국제한국문화학회』, Vol.22:201-224(24pages)
- 후지이 다케시, 2004, 「돌아온 '국민'-제대군인들의 전후-역사연구」(14), 255-295, 역사학연구

## 언론 기사

- 강정 방문하려던 미 평화재향군인회 ‘입국 거부’ 당해 (한겨레, 2012-03-15)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523674.html](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523674.html)
- 미국 평화활동가 입국 막은 배후는? (제주도민일보, 2012-03-15)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18>

한국전 참전용사들, 그들은 왜 평화를 외칠까? (유코리아뉴스, 2020-07-15)

<https://www.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29>

“어떤 정부도 스스로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 (프레스리안, 2006-09-26)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50442>

강정 찾은 참전 미군들 “No, Naval base!” (제주소리, 2015-12-08)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70537>

주재일, 2007, “평화운동하는 군인도 있지요”, 뉴스엔조이, 2007.8.6.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6>

[베트남 이야기] ‘조선의 양심’ 김영만 선생 (건치신문, 2005.04.11.)

<https://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

베트남전 참전 출신자 김영만씨 인터뷰 (노동자연대, 2003-10-04)

<https://wspaper.org/article/878>

## 참고 사이트

Veternas For Peace(VFP)

<https://www.veteransforpeace.org/>

The National Network Opposing the Militarization of Youth

<https://nnomy.org/en/>

Veterans Against The War(VAW)

<https://aboutfaceveterans.org/>

Vietnam Veterans Against The War(VVAW)

<http://www.vvaw.org/>

One Soldier's Heart : The Emotional Impact of War By TED ENGELMANN

<http://onesoldiersheart.com/Home.html>

## 2021 활력향연

활동가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활력향연>은  
공익활동가들이 스스로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개발하여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듭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퍼범** | 서울시NPO지원센터

**발행** | 2021년 11월 26일

**주소** | (04523)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2층

**전화** | 02-734-1109

**전송** | 02-734-1118

**메일** | [contact@snpo.kr](mailto:contact@snpo.kr)

**홈페이지** | [www.snpo.kr](http://www.snpo.kr)



